

어른들의 피로회복제 벤포벨S

육체피로 | 체력저하 | 신경통



신경통



육체피로



체력저하



관절통



눈의 피로



다른 공간 안으로
: 여성 작가들의 공감각적 환경
1956-1976

2026.5.5-11.29

Inside Other Spaces

LEEUM 

The original exhibition, *Inside Other Spaces. Environments by Women Artists 1956-1976*, was conceived and produced by Haus der Kunst München 2023.

This exhibition is made possible by the generous support of our partners:

Lead Sponsor

 KB Financial Group

Presenting Sponsor

BOTTEGA VENETA

박카스

 동아제약

지금.나를.재생

 동아제약

피로회복 · 자양강장

박카스®

*제품명-박카스디엡, 박카스에프엡, 박카스디카페엡 *제품유형-의약품 *용법-15세 이상 성인: 1일 1회 1병을 복용한다. 15세 미만은 복용하지 않는다. *효능·효과-박카스디엡: 육체피로, 병후의 체력저하식욕부진, 영양장애, 발열성, 소모성 질환 등의 경우 영양보급, 자양강장, 허약체질 | 박카스에프엡: 자양강장, 허약체질, 육체피로, 병후의 체력저하, 식욕부진, 영양장애 | 박카스디카페엡: 자양강장, 허약체질, 육체피로, 병중병후, 발열성 소모성질환의 영양보급 | SET-26E002

COVER ARTIST



이해민선 <덜 굳은 사물_주먹을 펴면>
2025, 인화지 위에 아크릴릭, 170×120cm

환자 몸에서 떼어낸 폐 깍스를 대상으로 작업한 페인팅이다. 분명 석고인데 ‘사물’로 대할 수 없는 ‘비사물’의 상태와 ‘사물’의 상태를 오가면서 작업했다. ‘아직 사물이 아닌’의 뜻으로 ‘덜 굳은 사물’이라 칭한다. 깍스에서 몸이 빠져나간 부분을 다시 석고로 캐스팅하면서 석고가 완전히 굳어지기 전의 말랑한 ‘덜 굳은’ 상태를 이르는 말이기도 하다.

작가 이해민선

이해민선은 회화를 중심으로 작업한다. 외부 조건을 견디는 사물의 상태에서 취약한 개인의 존재를 발견하고 관찰해왔다. 쉽게 사라질 듯하지만 최소한의 몸으로 경계에서 버티고 애쓰는 존재의 상태를 주목해왔다. 또한 사물의 상태와 그 안에 내포된 개념이 곧 작업의 방식과 상응하도록 다양한 시도를 이어왔다. 주요 전시로는 타데우스 로팍 서울 《Nostalgics on Realities》, 에스더 시퍼 서울 《불타는 집》, 강원국제비엔날레 《악의 사전》, 금호미술관 서울 《B컷 드로잉》, 일민미술관 서울 《Planet A: 종의 출현》,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젊은 모색》 등이 있다. 2025년에는 갤러리 휘슬 서울과 함께 ‘아트 바젤 홍콩’에 참여했으며, 2026년에는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로 선정되어 《올해의 작가상 2026》 전시를 앞두고 있다.

반년간지 《**mécénat**》는 신진 예술가를 널리 알리고 현대미술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신진 미술 작가의 작품을 표지에 지속적으로 소개합니다.

*이해민선 작가는 한국메세나협회의 ‘1기업 1미술작가 지원 사업’을 통해 현대백화점의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mécénat

2026 JUNE VOL. 125

SPECIAL THEME

테마 스토리	06.	예술을 사랑한 메세나 선구자들
리포트①	10.	예술 인큐베이팅: Seeding, 탐색
리포트②	16.	예술 인큐베이팅: Building, 육성
리포트③	22.	예술 인큐베이팅: Scaling, 확장
칼럼	28.	한국형 메세나의 새 지평을 향해

SPOTLIGHT

메세나 스코프	34.	게임회사의 도전과 메세나
기업은 지금	38.	CJ문화재단
예술은 지금	44.	클라리네티스트 김한
이슈 브리핑	48.	‘문화가 있는 날’ 활성화 업무협약
해외 메세나	50.	프랑스 아트익스플로러재단의 꿈

SIDE BY SIDE



QR 코드로 한국메세나협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더 많은 소식을 보실 수 있습니다.

54.	파트너십
56.	메세나 현장
62.	협회 뉴스
65.	회원사 뉴스
68.	회원사 소개

발행일	2026년 6월 19일
발행처	한국메세나협회
발행인	윤영달
편집인	이충관
기획	한국메세나협회 경영기획팀
제작	오니트(주) www.on-it.kr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7(여의도동 13-31) 기계산업진흥회 본관 6층

Tel. 02-761-3101~2

가격 5,000원

홈페이지	www.mecenat.or.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mecenat.korea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koreamecenat
유튜브	www.youtube.com/@koreamecenat

*본지에 실린 글의 내용은
한국메세나협회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SPECIAL

위대한 예술의 긴 여정과 동행하다 예술 인큐베이팅과 메세나

위대한 예술의 탄생은 절벽에 피어난 꽃처럼 경이롭다. 예술적 재능이 꽃피우기 위해서는 오랜 인내와 노력이 필요하며, 각 단계마다 적절한 도움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 기적과도 같은 예술적 성취를 위해 메세나는 단발성의 후원을 넘어 예술가의 생애 주기에 걸친 단계적 인큐베이팅 구조를 발전시키고 있다.

THEME



OCYDUNG CREATIVES 신중민 개인전 《Add-on》



DAC Artist 양은프로젝트의 연극 《목소리만들기》

예술을 사랑한
메세나 선구자들

예술가의 삶, 작업, 꿈을 소중히 하다

예술가를 키우는 일은 긴 기다림과
실패의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다. 오늘날
많은 기업이 예술 인큐베이팅의 중요성과
어려움에 공감하며 뜻을 모으고 있다. 그
출발은 예술의 가치를 알고 예술가의 재능을
사랑해 대가 없는 애정을 쏟은 메세나
선구자들의 순수한 후원 정신이었다.

글 편집부



故 박영주 이견산업 회장

제6·7대 한국메세나협회 회장
2005.10 ~ 2012.2 역임

“사람의 정서를 풍요롭게 하고, 선량함과
아름다움을 배양해 삶을 윤택하게 하는 데 음악
이상의 것이 있겠는가.”

1990년 인천의 이견산업 공장에서 시작된 《이견음악회》는 우리
나라에서 기업이 후원하는 클래식 음악회 중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할 뿐만 아니라 40년 가까이 전석 무료라는 원칙을 지켜오며
메세나의 표본으로 손꼽히는 프로그램이다. 기업이 음악으로 사
회에 공헌한다는 인식조차 미비하던 시절에 故 박영주 이견산업
회장이 직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시작해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
할 정도로 애정을 쏟았다. 3년 전 타계한 고인은 투병 중에도 음악
회에 참석하면서 자신의 사후에도 이어가 달라는 당부와 함께 향
후 5년간의 연주자 명단을 직접 챙기는 등 음악에 대한 애정이 각
별했다.



박용현 두산연강재단 이사장

제8대 한국메세나협회 회장
2012.3~2015.2 역임

“문화예술 지원은 100년 후를
내다보는 안목이 필요하다. 문화예술 수준이 곧
국격이다.”

외과 전문의 출신의 기업인은 예술에서 보편적이고 폭넓게 작용하
는 치유의 힘을 보았을지도 모른다. 박용현 두산연강재단 이사장
은 정서적 치유와 사회 통합의 힘을 가졌으며 국가의 품격을 대표
할 수 있는 예술의 중요성을 알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
해 왔다. 1978년에 설립되어 교육·장학사업에 집중했던 두산연강
재단은 2005년 박용현 이사장 취임과 2007년 두산아트센터 개관
을 계기로 문화예술 지원을 강화했다. 박용현 이사장은 젊은 창작
자 지원에 특히 애정을 쏟아 왔는데 두산갤러리 뉴욕, 두산레지던
시 뉴욕 개관을 지휘하는 등 한국 작가의 글로벌 진출 지원사업에
서도 선구자적 행보를 보였다.

mécénat



故 박성용 금호그룹 회장

제5대 한국메세나협회 회장 2003.7 ~ 2005.5 역임

“문화와 예술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람을 사랑
하는 것이고, 젊음을 사랑한다는 것이며, 인류
의 미래를 믿는 것이다.”

금호문화재단 사무실 벽에 게시되어 있는 고인의 어록은 금호가 왜 대한민국 클래식 영재
의 산실로 불리게 되었는지를 미루어 짐작하게 한다. 故 박성용 명예회장은 그룹 경영 일선
에서 물러난 후 직접 금호문화재단 이사장을 맡을 만큼 문화예술사업에 진심을 다했다. 수많
은 클래식 영재를 키웠는데, 그 중에서도 피아니스트 손열음을 아낀 이야기는 지금도 전설처
럼 회자된다. 재단이 운영하는 공연장을 찾을 때도 매번 표를 구매해 지정석에 앉은 것은 예술
애호가га 예술에 보내는 가장 경건한 경의였다.



박삼구 前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제9대 한국메세나협회 회장 2015.3~2018.2 역임

“기업이 좋은 제품을 만드는 일 못지않게 문화예술 후원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2014년,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몽블랑 문화예술 후원자상 수상은 메세나가 재계의 전통으로 정
착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장면이었다. 박삼구 회장은 박성용 명예회장에 이어 ‘영재는 기르고 문화
는 가꾸자’는 선대 회장들의 정신을 실천하며, 금호문화재단을 통해 예술영재 육성과 신진예술가 후원의 체
계화에 힘썼다. 이 밖에도 단편영화 감독 지망생들의 어려움을 듣고 2003년 아시아나국제단편영화제AISFF
를 시작했으며, 2009년에는 지역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광주광역시에 유스퀘어 문화관을 건립하는 등 문
화예술 지원의 저변을 확대했다.



김영호 일신방직 회장

제10대 한국메세나협회 회장 2018.3~2021.2 역임

“예술 후원자는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시대를 앞서가는 예술가의 작품을 많이 접해야 한다.”

김영호 일신방직 회장은 음악, 미술, 건축, 연극 등 다방면의 후원을 이어 온 메세나인이다. 특히 미술 컬렉터로 유명한데 미술품을 수집할 때 현존 작가의 작품을 대상으로 한다는 원칙을 고수해 왔다. 작가가 창작에 매진할 수 있도록 실질적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는 이유다. 1970년대부터 신진 작가와 미대생들의 작업실을 다니며 작품을 구매했는데 당시 무명이던 극사실주의 작가 고영훈의 작품을 수집한 일화도 유명하다. 일신홀과 일신작곡상을 통해 현대음악도 꾸준히 지원해 왔다. 2007년 몽블랑 문화예술 후원자상을 수상하며 받은 상금 전액을 현대음악 발전에 힘써 달라는 의미로 작곡가 진은숙에게 지원했다.



김희근 벽산엔지니어링 회장

제11대 한국메세나협회 회장 2021.3~2024.2 역임

“기업의 이윤은 변한다. 더 오래 누릴 수 있는 행복을 위해서는 예술과의 동행이 중요하다.”

김희근 벽산엔지니어링 회장은 행복과 성공에도 단계가 있으며 문화예술 후원과 사회 기여를 통해 존경받는 기업인이 되는 것이 으뜸이라는 지론을 펼쳐왔다. 음악, 미술, 연극 등 다양한 분야의 후원자이자 메세나 전도사로 정평이 나 있다. 세종솔로이스츠를 비롯한 전문 연주단체들과 오랜 교류를 이어왔고, 40여 년간 수집한 미술 작품들로 컬렉션 전시를 수 차례 열 만큼 소문난 컬렉터이기도 하다. 2010년에는 벽산문화재단을 설립해 더욱 전문적인 지원 체계를 갖추었다. 특히, 한국 연극예술 발전의 토대를 다진다는 취지에서 벽산예술상 희곡상을 제정·운영 중이다.



양귀애 설원량문화재단 이사장

2012년부터 현재까지
한국메세나협회 부회장 재임

“문화예술은 생각의 지평을 넓히고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자양분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즐기고 노력해야 할 ‘생활필수품’ 같은 존재다.”

양귀애 설원량문화재단 이사장은 양태진 국제그룹 창업주 회장의 딸이자 故 설원량 대한전선 회장의 부인으로, 2004년 남편의 타계 이후 회사를 이끌었다. ‘감성경영’이라는 키워드를 기업에 접목한 대표적 경영인으로 손꼽히는데,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에서 피아노를 전공한 이사장이 직원들을 집으로 초대해 함께 식사하고 피아노 연주를 들려준 일화가 유명하다. 고인의 이름으로 문화재단을 설립하고 무주리조트 지하에 카네기홀 수준의 공연장을 조성해 무료 상설음악회를 운영했으며 ‘페스티벌 오원’을 후원하는 등 활발한 메세나 활동을 펼쳐 왔다.



故 이운형 세아그룹 회장

2006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메세나협회 부회장 역임

“철강업 경영은 딱딱한 하드웨어를 다루는 일인 만큼 우리 사회의 소프트웨어 분야인 문화예술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야만 한다.”

故 이운형 세아그룹 회장은 ‘세상을 아름답게’라는 뜻의 사명변경을 주도했는데, 예술이 세상을 아름답게 할 힘을 갖고 있다고 믿은 메세나인이었다. 특히, 재계의 손꼽히는 오페라 애호가로서 오페라의 대중화를 꿈꿨다. 2000년부터 2007년까지 국립오페라단 이사장을 역임했고 이후 후원회장으로도 활동했다. 이사장 시절에는 단원 오디션이나 콩쿠르 때 객석 맨 뒤에 앉아 점수를 매기고 심사위원 채점표와 비교해 보며 ‘나도 듣는 귀가 제법 트였다고 기꺼워했다는 일화가 전한다. 2013년에 작고한 고인의 뜻을 기려 설립된 세아이운형문화재단은 오페라를 중심으로 인재 양성과 음악회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윤영달 크라운해태제과그룹 회장

2024년 2월, 제12대 한국메세나협회 회장 취임

“예술은 더 좋은 삶을 위한 공기와 같다. 문화예술이 융성해야 고객이 더 행복하고 기업도 더욱 발전할 수 있다.”

기업인의 예술 사랑이 더욱 가치 있는 이유는 대중의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분야에 더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윤영달 크라운해태제과그룹 회장은 전통 음악, 조각, 시 분야에서 독심 있는 메세나를 주도해왔다. 특히, 전통음악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악 대신 ‘한음한국 음악’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주창하고, 아이들이 재미있게 장단을 배울 수 있는 ‘장단기’의 개발을 직접 주도할 만큼 전통음악의 지원에 열정을 쏟고 있다. 직원의 예술 활동을 독려해 예술을 기업문화의 일부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도 메세나의 귀감으로 이야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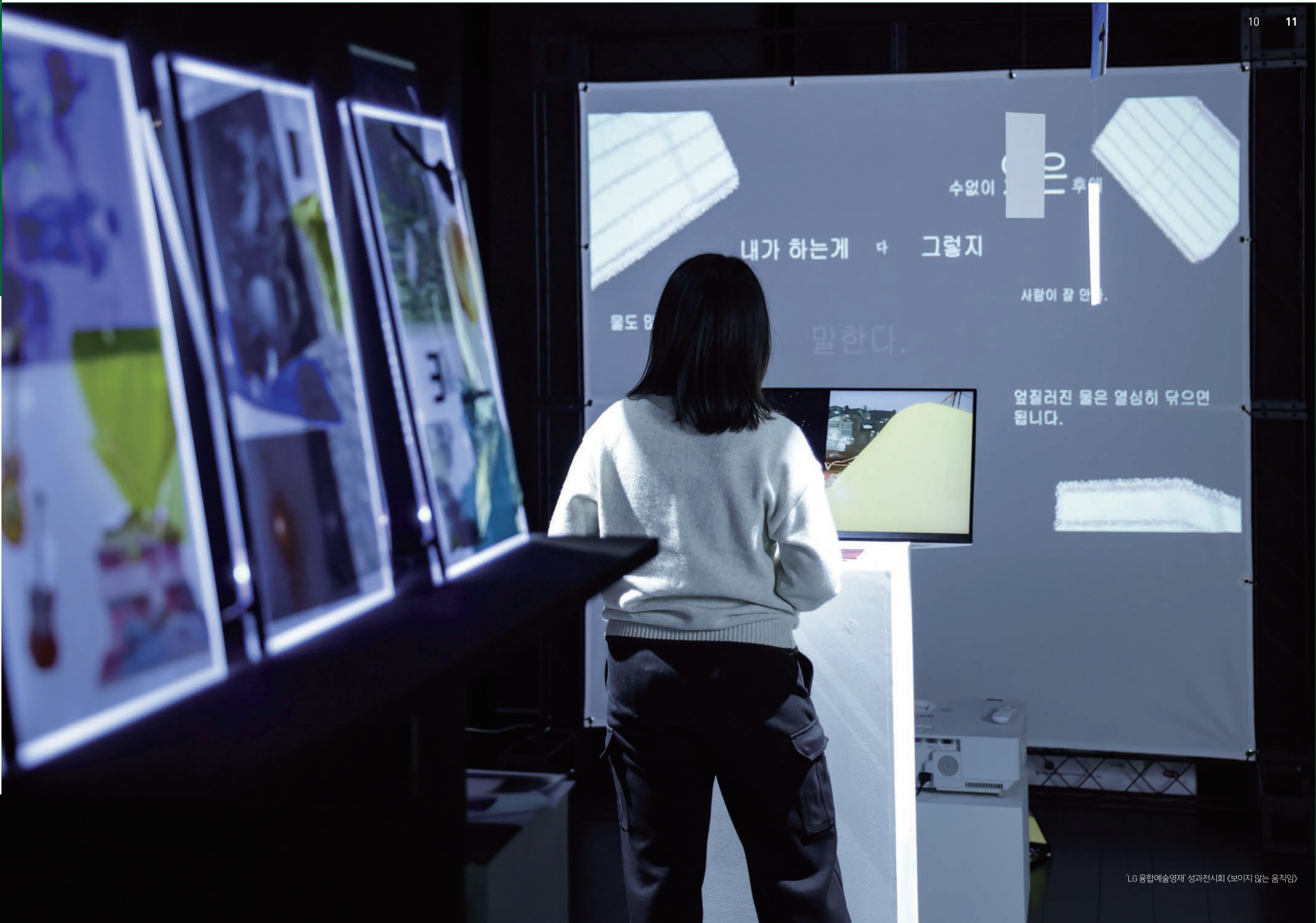
예술 인큐베이팅

Seeding, 탐색

가능성의 씨앗을 심는 시선과 시간

예술적 재능은 저절로 드러나지 않는다.
어린 시절의 문화예술 경험과 훈련은
가능성의 씨앗을 심는 예술 인큐베이팅의
첫 단계이자 예술계의 미래를 위한 가장
근본적인 투자다.
멀리 보고 오래 기다려 작은 가능성을
크게 키우는 유소년 문화예술교육의
가치를 많은 메세나 기업이 알고
동참하는 중이다.

글 편집부
사진 제공 LG연암문화재단, 대산문화재단,
크라운해태제과그룹, 롯데백화점(스테이지원),
한화그룹,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



‘LG 융합예술영재’ 성과전시회 〈보이지 않는 움직임〉

에스토니아의 수도에서 상영된 한국 영화

에스토니아의 수도 탈린에서는 매년 11월에 북유럽 최대 규모의 영화제가 열린다. 현대 세계 영화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작품들을 선보이며 영화 팬과 관계자로부터 사랑받는 《탈린 블랙나이즈 영화제^{OFF}》다. 본 프로그램과 함께 열리는 청소년 영화제 《저스트 필름 JUST FILM》도 주목받는 행사다. 지난해에는 한국의 청소년이 제작한 영화가 경쟁부문에 초청되었다. ‘LG융합예술영재’ 프로그램에 참여한 유봄빛 장학생의 <Suddenly One Day>(한국어 제목 <아이>)라는 작품이었다.

낯선 언어를 사용하는 이국의 관람객들이 500석 규모의 상영관을 가득 채우고 자신의 영화에 집중하던 모습은 유봄빛 학생에게 강렬한 기억을 남겼다. 유봄빛 학생은 이 특별했던 경험을 새로운 도전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각오와 함께, 아낌없는 지원으로 국제 영화제 출품까지 함께해준 ‘LG융합예술영재’ 프로그램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새로운 창작을 이끄는 ‘LG융합예술영재’

‘LG융합예술영재’는 LG연암문화재단과 한국메세나협회가 함께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한국예술종합학교와 협약을 맺고 산하 한국예술영재교육원 교육생 중 장학생을 선발해 미디어 아트 중심의 영재교육을 실시한다. 장학금, 창작 활동비 외에 창작 워크숍과 재학생 멘토링을 지원하고 해외 페스티벌 참가 기회를 부여한다.

LG연암문화재단은 청소년 문화예술 교육사업을 오랫동안 추진해왔다. 특히, 특정 장르 중심의 교육을 탈피해 예술과 기술, 인문학 등 서로 다른 영역의 융합을 시도하며 급변하는 예술 환경 속에서 스스로 질문하고 새로운 형식을 만들어내는 미래의 예술가가 탄생할 기반을 제공하고자 힘썼다. 청소년의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과 예술적 소양을 함양하는 ‘LG아트클래스’를 진행한 데 이어 올해부터는 ‘LG융합예술영재’ 사업으로 단일 화해 더욱 전문적인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대산청소년문학상이 미래의 문인들에게

아직 형태를 갖추지 않은 가능성 단계의 예술에는 섬세하면서도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메세나는 반짝이는 재능을 찾아낼 뿐만 아니라 유망주가 자신의 선택을 믿고 정진하도록 이끈다. 대산청소년문학상은 미래의 문인을 꿈꾸는 청소년들에게

- ① ‘LG융합예술영재’ 창작 워크숍
- ② ‘2025 대산청소년문학상’ 시상식
- ③ ‘2025 대산청소년문예캠프’ 문학수업



‘계속 창작해도 된다’는 격려를 보내고 있다.

교보생명 대산문화재단은 창작·번역·연구·출판과 청소년 장학 사업에 이르기까지 한국문학의 진흥을 위한 지원사업을 30년 이상 이어왔다. 1993년에 시작된 대산문학상은 한국문학을 대표할 작품을 선정한다는 취지에 따라 국내 최대 규모로 열리는 종합문학상이다. 나란히 34회를 맞은 대산청소년문학상 역시 가장 권위 있는 문예대회로 손꼽힌다. 전국 중고등학교 재학생 및 해당 나이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소설 작품을 공모한다.

대산청소년문학상은 공모와 시상이라는 전형적 형식을 탈피해 참가자들의 자질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접목하고 있다. 수상 후보자를 대상으로 2박 3일간의 ‘대산청소년문예캠프’를 실시해 최종 수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평가보다 교육에 중점을 둔 만큼 참가 인원은 수십 명에 달한다. 캠프는 작가 강연, 창작 워크숍, 합평회, 백일장 등 다양한 창작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참가자들은 같은 꿈을 꾸는 이들과 밀도 높게 소통하면서 우정을 쌓는다.

‘한음 꿈나무’를 키우는 크라운해태제과그룹

전통예술 분야에서 크라운해태제과그룹의 메세나는 유망주의 등대와 같은 존재다. 크라운해태제과그룹은 전통음악을 이끌어갈 미래의 명인을 발굴하기 위해 국내 최대 규모의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한음 꿈나무 경연대회’와 ‘모여라!! 한음 영재들 경연대회’를 통해 청소년 인재들이 꾸준히 재능을 갈고 닦아 예술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고 있다.

‘한음 꿈나무 경연대회’는 2010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는 개인 부문 경연이다. 참가 자격은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로 구분하며 초등부는 다시 저학년과 고학년으로 나누어 광범위한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경연 부문도 해가 갈수록 확대되었다. 지난해에는 현악(가야금, 거문고, 아쟁), 관악(해금, 대금, 소금, 피리, 태평소), 성악(판소리, 민요, 정가, 병창), 무용(정재, 민속무용), 타악, 연희 등 19개 부문에서 200여 명의 참가자들이 치열하게 경합했다. ‘모여라!! 한음 영재들 경연대회’는 합주와 협연의 경험을 강조하는 단체 경연이다. 유치부와 초등부로 구분해 부문별 경연을 펼치며 종합대상팀에는 교육부장관상이 수여된다.

경연 수상자들에게는 크라운해태제과그룹이 개최하는 다양한 공연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진다. 수상자들은 서울남산국악당 크라운해태홀에서 매주 열리는 《영재한음회》, 민간 기업이 개

④, ⑤ 《제300회 영재한음회》 특별 공연

최하는 국내 최대의 전통음악 공연인 《창신제》 등의 무대를 경험하면서 더 큰 꿈을 키워 간다.

연주자의 꿈을 키우는 ‘롯데 키즈 오케스트라’

어린이·청소년 오케스트라 교육은 수많은 가능성 속에서 반짝이는 재능을 찾아낼 뿐만 아니라 개인 레슨만으로는 익히기 어려운 연주자의 자질을 함양하도록 이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롯데백화점은 재능 있는 아이들을 선발해 평생 음악을 사랑할 계기를 만들어주고 궁극적으로 K-클래식 저변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 2023년 ‘롯데 키즈 오케스트라’를 창단했다. 롯데 키즈 오케스트라는 매년 2차 심사 과정을 통해 두 자릿수 규모의 신규 단원을 선발하고 전문적 교육을 제공한다. 부산시 향 부지회자를 역임한 이민형 지휘자와 악기별 전문 강사진이 3개월간 단원들을 지도하며, 난이도 있는 레퍼토리를 완성해 롯데콘서트홀에서 단독 공연을 진행한다. 클라리네티스트 안드레아스 오텐잠머Andreas Ottensamer와 바이올리니스트 레이 첸Ray Chen 등 세계적 연주자들의 마스터클래스로 음악을 폭넓게 이해

롯데콘서트홀에서 연주하는 ‘롯데 키즈 오케스트라’

하며 기량을 연마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또한, 롯데 키즈 오케스트라 활동이 더욱 의미 있는 경력이 될 수 있도록 단원 출신 연주자 중 롯데콘서트홀 공연 협연자를 선발하는 제도를 올해부터 신설해 운영한다.

협동과 배려를 배우는 ‘한화청소년오케스트라’

지역 기반의 오케스트라 교육으로 아이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예술 영재의 탐색 범위를 넓히는 메세나도 늘고 있다. 한화그룹이 한국메세나협회와 함께 운영하는 ‘한화청소년오케스트라’는 2014년부터 충북 청주와 천안 지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클래식 악기를 가르치고 있다. 6개월간 파트 연습과 합주 등 교육을 실시하고 연말 정기연주회에서 갖고 닦은 실력을 선보인다. ‘한화청소년오케스트라’가 추구하는 가치는 ‘함께하는 성장’이다. 청소년의 정서 함양, 협동심과 배려심을 기르는 과정을 중시하며 실력으로 단원을 선발하는 대신 모두에게 동등한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초등학교생부터 고등학교생까지 다양한



6



7



8

⑥ ‘한화청소년오케스트라’의 정기 연주회

⑦ 온-아트 성과공유 연주회에서 연주 중인 ‘인천공항 온-아트 유스 오케스트라’

⑧ 한국마사회 ‘농어촌 청소년 오케스트라(괴산) 연습 현장

연령대의 참가자가 함께하는 것도 이해와 교류의 폭을 넓힌다. 2021년부터는 참가자 간 실력 편차를 고려해 기초반과 초급반으로 나눠 몰입도 높은 교육을 이끌고 있다.

영종도의 하모니 ‘인천공항 온-아트 유스 오케스트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한국메세나협회와 함께 2021년부터 인천 지역 아동·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사업 ‘온-아트스쿨’을 진행해왔다. 그 일환으로 2024년에는 영종도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 ‘인천공항 온-아트 유스 오케스트라’를 창단했다. 이 오케스트라는 영종도에 위치한 학교에 재학 중인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단원들로 구성된다. 단원들은 6개월간 매주 주말에 진행되는 정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바이올린, 첼로, 플루트 등 각 악기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출신 전문 강사진이 합주 교육을 이끈다. 연말이 가까워 오면 온-아트 성과공유 연주회를 위해 집중 교육을 실시한다. 서로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마음을 모아 연주하는 음악이 점점 큰 감동으로 단원들의 마음에 스며들 때 오케스트라는 최고의 연주를 청중에게 선사하며 그간의 여정을 마무리한다.

한국마사회가 지원하는 ‘농어촌 청소년 오케스트라’

인구는 점점 줄고 문화적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농어촌 현실에서 클래식 연주 경험이란 메세나가 아니라면 상상하기 쉽지 않은 이야기일 것이다. 한국마사회는 2011년부터 ‘농어촌 청소년 오케스트라 KIDO(Korea Young Dream Orchestra)’를 운영하며 한국형 ‘엘 시스템’을 실현하고 있다. 현재 강원(화천), 경남(함안, 합천), 경북(고령, 칠곡), 전남(신안, 해남), 전북(익산), 충남(서천, 부여), 충북(괴산), 제주(서귀포)에서 12개 오케스트라가 활동 중이다. 차상위 계층, 다문화 가정 등 사회적 배려 청소년을 포함해 630여 명의 단원이 소속되어 있다. KIDO는 지역 연주회 외에도 권역별 합동연주회를 비롯해 활발한 연주 활동을 펼친다. 코로나 이전에는 러시아 사할린주와 청소년 음악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한국과 러시아를 상호 방문하는 교류 연주회를 정기적으로 진행했다.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은 오케스트라에서 활동하고 음악 관련 학교에 진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KIDO에서 꿈을 찾은 아이들이 그 다음 페이지를 어떻게 채워갈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메세나는 또 한걸음을 내디뎠다. 

예술 인큐베이팅

Building, 육성

탁월함을 이끌어내는 만남과 무대

신진 예술가란 가능성과 위험을 동시에 내포한 존재다. 예술가는 가능성을 인정받는 순간부터 자신의 예술을 어떻게 정립하고 지속할지에 관해 더 치열한 질문을 마주한다. 그 답을 찾는 것은 각자의 몫이겠지만 메세나는 신예가 성장의 문턱을 선뜻 넘어설 수 있도록 디딤돌을 놓는다.

글 편집부

사진 제공 금호문화재단, 두산아트센터, OCI미술관, 메트라이프생명 사회공헌재단, KT&G장학재단, 종근당고촌재단

클래식 영재 육성 명가 ‘금호’

2026년 상반기에도 우리나라 클래식계에는 국제 대회 출전자들의 승전보가 이어졌다. 2026 클래식 첼로 국제 콩쿠르에서 첼리스트 김정아가 최연소 우승을 차지하며 특별상을 함께 수상했고, 첼리스트 박이준이 그 뒤를 이어 2위를 차지했다. 피아니스트 손세혁은 프라하 봄 국제 음악 콩쿠르에서 1위와 함께 3개 부문 특별상을 휩쓸었고, 튜비스트 강병호는 2026 마르크 노이키르헨 국제 기악 콩쿠르에서 3위에 올랐다.

클래식 연주자들이 연이어 쾌거를 거두고 있다는 소식 가운데 익숙한 이름이 눈에 띄었다. 이 연주자들을 배출하고 지원한 ‘금호영재’다. 클래식계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연주자들을 이야기할 때 ‘금호영재 출신’이라는 말은 더 이상 새삼스럽지 않다. 지금까지 2,000명 이상의 연주자를 지원한 ‘금호’는 클래식 영재의 산실로 명실상부한 위상을 이어가고 있다.

음악가의 성장에 필요한 무대와 시간

금호문화재단은 음악 영재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키우는 시스템을 정립하고 세계적 연주자를 배출해왔다. 금호영재·금호영아티스트·금호영체임버콘서트로 이어지는 독보적 시스템이다. 1998년에 시작된 ‘금호영재콘서트’ 시리즈는 만14세 이하의 음악 영재를 위한 무대다. 1999년에는 만 15세에서 25세 사

2026 금호아트홀
상주음악가 김태한의
공연 《페르소나Ⅱ. 관계》
©금호문화재단





이의 젊은 음악가들을 위한 '금호영아티스트콘서트' 시리즈를 시작했고, 2008년부터 젊은 음악가로 구성된 실내악단을 발굴·지원하기 위해 '금호영체임버콘서트'를 마련했다.

이 시리즈를 통해 데뷔한 음악가들이 더 깊은 예술 세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2013년에는 '금호아트홀 상주음악가' 제도를 도입했다. 상주음악가는 1년이라는 활동 기간을 두고 직접 기획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하고 싶은 음악에 마음껏 몰입할 기회를 가진다. 다른 연주자와 협연하며 작업의 경계를 넓히고 새로운 방향을 탐색할 수 있다. 피아니스트 선우예린, 첼리스트 문태국 외 다수의 음악가가 이 시간을 거쳐 세계 무대에서 활약 중이다.

공연예술의 지평을 넓히는 'DAC Artist'

두산아트센터는 공연예술 분야에서 재능 있는 유망주를 키우고 신예들이 기량을 마음껏 펼칠 공간을 제공해왔다. 공연예술

DAC Artist 이경성의
《비포 애프터》

은 제작비와 공간, 인력 등 복합적인 자원이 필요한 분야다. 한 사람의 창작자가 독립적으로 감당하기 쉽지 않고 신예들에게는 지원이 더욱 부족한 구조 속에서 두산아트센터는 청년 창작자의 실험적 도전을 응원하고 있다.

'DAC^{DOOSAN ART CENTER} Artist'는 극작가, 연출가, 국악창작자 등 공연예술 분야의 젊은 창작자에게 작품 활동을 위한 안정적 기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2007년부터 진행했으며 2021년부터는 공모를 거쳐 매년 두 명의 예술가를 선정하고 있다. 공연제작비, 연습실과 공연장, 기획·제작·홍보마케팅, 해외연수 기회까지 지원해 예술가의 역량을 극대화하는 데 집중한다. 이 과정을 거쳐 많은 청년 창작자들이 독자적인 예술 세계를 구축하고 공연예술의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하고 있다.

오는 7월에 열리는 '제80회 아비뇽 페스티벌'에서는 한국어가 '초청언어'로 선정되어 한국 공연예술이 28년만에 공식 프로

그램에 이름을 올린다. 이 이벤트에 공식 초청되어 신작 《눈, 눈, 눈》을 발표할 국악 창작자 이자람, 《섬 이야기》를 무대에 올릴 연출가 이경성은 'DAC Artist' 출신으로 Space111에서 다수의 작품을 무대에 올린 이들이다. '연극인의 연극인'으로 불리는 '양손프로젝트'도 마찬가지. 동시대 공연예술의 흐름을 주도하며 젊은 거장으로 손꼽히는 많은 예술가들의 이력에는 'DAC Artist' 활동이 빠지지 않는다.

원석의 진가를 찾는 'OCI YOUNG CREATIVES'

OCI미술관의 'OCI YOUNG CREATIVES'는 충분히 주목받지 못했지만 가능성을 지닌 '원석'을 찾는 신진작가 지원 프로그램이다. 만 35세 이하의 젊은 창작자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해 매년 6인의 작가를 선정하고 창작지원금과 개인전 개최 기회를 제공한다. OCI미술관은 작가를 선정할 때 신선한 시도와 작업에 대한 진

'2021 OCI YOUNG CREATIVES' 홍세진 작가 인터뷰

지함을 갖고 있는지, 스스로 작업을 계속할 힘을 갖고 있는지, 앞으로의 작업이 기대되는지를 중점적으로 고려한다. 이력이 나 배경보다 작업에 집중하는 만큼 'OCI YOUNG CREATIVES'를 통해 개인전을 처음 여는 경우도 많다. 이들이 새로운 작업에 대한 부담감을 떨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창작 과정에 함께하는 것도 프로그램의 특징이다. 단순히 지원금을 지급하는 수준을 넘어 전시 기획은 물론, 작업 과정 전반을 지원하고 작가로서의 성장까지 함께 고민하고 있다.

2010년에 시작해 17년째 이어온 'OCI YOUNG CREATIVES'는 100명이 넘는 창작자를 발굴하며 미술계의 대표적 등용문으로 자리잡았다. OCI미술관의 정유연 선임큐레이터는 "OCI YOUNG CREATIVES'를 계기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작가들이 늘어나는 만큼 작가와 미술관이 함께 성장한다고 느끼며 더 큰 책임감을 갖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메트라이프생명 사회공헌재단 ‘The Gift’

메트라이프생명 사회공헌재단의 ‘The Gift 더 기프트’는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한 퓨전 국악과 장애·통합예술 분야의 창작단체를 발굴해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2019년 한국메세나협회와 함께 단발성 후원을 넘어 예술단체의 자립과 성장을 지원하는 모델을 정립하고자 시작했다. 특히, 문화예술 후원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는 와중에도 국악 분야 지원 비중은 미미한 여건 속에서 도전과 실험을 이어가는 젊은 창작자들에게 단비 같은 지원을 보내왔다.

3년에 걸친 장기간의 지원은 창작자들이 예술적 역량을 키우고 활동 기반을 강화할 시간을 만들어 준다. 또한, 공연 제작, 음원 발매와 유통, 저작권 관리, 홍보 마케팅을 아우르는 전문적

메트라이프생명 사회공헌재단 ‘The Gift’의 네 번째 지원단체 ‘차차웅’

인 지원으로 창작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을 높인다. 퓨전 국악밴드 ‘엑스AUX’, 장애·비장애 통합 오케스트라 ‘코리아 아트빌리티 체임버’, 국악 크로스오버 밴드 ‘날다NALDA’, 퓨전 국악밴드 ‘차차웅’ 등 다양한 예술단체를 지원해왔다.

‘The Gift’는 예술단체 지원과 찾아가는 문화공연 서비스를 결합한 메세나 프로그램이다. 예술단체들은 문화예술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을 찾아가 ‘The Gift’를 통해 창작한 공연을 선보인다. 네 번째 지원단체인 ‘차차웅’은 지난해 퓨전국악 뮤지컬 《낭만도깨비전》으로 부산, 대전 등을 찾았고, 연말에는 엑스와 날다의 오단해, 서진실과 함께한 《묘한민요》 콘서트에서 민요의 색다른 매력을 소개했다.

발레 영재의 성장을 지원하는 KT&G장학재단

생활예술로서 발레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지만 전문 예술의 기반은 여전히 취약하다. 그럼에도 한국 발레의 질적 향상을 실행하게 하는 발군의 예술가들이 꾸준히 등장하고 있다. 로잔 국제발레콩쿠르에서 한국 발레리노 최초로 우승을 차지한 박윤재, 러시아 마린스키 발레단에서 활동하며 세계 발레계의 스타별로 주목받고 있는 전민철 등이다. 한국 발레의 약진을 말하기는 이르지 모르나, 10년 이상 발레 영재를 지원해온 메세나의 성과를 돌아볼 수 있는 활약이다.

KT&G장학재단은 메세나 기업 중에서도 드물게 발레 영재 육성에 오랜 기간 투자를 이어왔다. 2016년부터 문화예술 장학 사업을 시작해 발레 영재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이들이 체

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발레 마스터 클래스’를 운영해왔다. ‘발레 마스터 클래스’는 한국메세나협회의 ‘기업과 예술의 만남’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KT&G장학재단은 WBTA 세계발레지도자협의회와 결연을 맺고 강동문화재단과 협력해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발레 마스터 클래스’ 참가자들은 김인희 총 예술감독을 비롯해 문훈숙, 제임스 전, 강예나, 김용걸, 김주원, 알렉산드르 세이트 칼리에프 등 국내외 유수의 마스터들이 진행하는 집중 훈련에 참여한다. 또, 과정을 마친 후에는 《KT&G장학재단과 함께하는 BALLET SHOWING》 공연에서 갖고 닦은 실력을 선보이며 무대 경험을 쌓는다.

‘종근당고촌 예술지상’으로 다시 시작하며

종근당홀딩스는 신예 작가들이 자유롭게 창작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2012년부터 ‘종근당 예술지상’을 운영해왔다. 매년 3인의 회화작가를 선정해 3년간 창작지원금을 지급하고 기획전시 개최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 종근당고촌재단의 참여로 공익성을 더욱 강화하고 ‘종근당고촌 예술지상’으로 명칭을 변경해 이어간다.

지난 3월 22일 발표된 ‘2026 종근당고촌 예술지상’은 김명찬·박그림·염지희 작가를 올해의 작가로 선정했다. 김명찬 작가는 인물과 일상을 소재로 한 구상회화를 통해 조형미와 회화의 확장성을 탐구한다. 박그림 작가는 전통 불교 회화의 요소를 동시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다. 염지희 작가는 콜라주를 주요 언어로 삼아 개인의 경험과 꿈, 인간 존재에 대한 탐구를 시각적으로 풀어낸다.

‘종근당고촌 예술지상’은 한국메세나협회의 ‘기업과 예술의 만남’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첫해부터 대안공간 아트스페이스 휴와 함께해왔다. 아트스페이스 휴의 김노암 대표는 2012년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리는 글에서 “선정된 작가들뿐 아니라 심의과정에 검토되었던 더 많은 작가들이 여전히 동일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자.”라고 했다. 신예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메세나는 주목해야 할 예술가가 누구인지 가리킨다. 동시에, 또 다른 가능성을 지닌 이들이 얼마든지 존재한다는 사실과 메세나가 더 많은 곳에 관심을 보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①
KT&G장학재단
‘발레 마스터 클래스’
현장

②
《제12회 종근당 예술지상》
전시 전경

세계를 향한 도전의 서사 속 메세나

예술 인큐베이팅

Scaling, 확장

예술가는 자신의 작업이 다른 문화권의 관객과 어떻게 만나는지 확인함으로써
예술 세계를 확장할 수 있다. 예술가의 해외 진출은 의미 있는 작업을
지속하기 위해 도전해야 할 과제다. 그 도전을 위해 메세나는 해외 공연과 전시,
레지던시 등 예술가가 세계와 접속할 수 있는 여러 형태의 플랫폼을 설계한다.
글 편집부 | 사진 제공 한화문화재단, 삼성문화재단, 후지필름코리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화문화재단이
뉴욕에 개관한
'스페이스 제로원'

뉴욕 미술계에 소개된 한국의 신진작가들
동시대 미술의 흐름을 앞서 읽고 새로운 담론을 주도하는 곳,
뉴욕이라는 공간이 전 세계 미술계에 발휘하는 영향력은 여
전하다. 세계 유수의 갤러리와 컬렉터, 비평가가 밀집한 뉴욕
맨해튼에 한국 작가의 세계 진출을 위한 교두보가 마련되었
다. 한화문화재단이 지난해 11월 개관한 '스페이스 제로원Space
ZeroOne'이다.
대형 갤러리 중심의 상업미술 허브로 전통적인 위상을 자랑하
는 첼시가 아닌, 젊고 실험적인 전시로 각광받는 트라이베카에
개관했다는 사실이 '스페이스 제로원'이 지향하는 바를 보여준
다. 단순한 전시공간을 넘어 한국의 젊은 작가들이 현지 미술
계와 접속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한다는 점이 더 큰
기대를 모았다.

한화문화재단의 '스페이스 제로원'
한화문화재단은 '스페이스 제로원' 개관전으로 한국 신진작가
8인을 소개하는 전시 《Contours of Zero》^{제로의 곡선}을 진행했다.
한화문화재단의 '영민 해외 레지던시' 출신인 백정기, 유지영,
지희킴을 비롯해 박정혜, 서진호, 송민정, 오가영, 홍기하 작가
의 작업들을 선보인 전시였다. 작가들은 한국사회의 여러 단면
들을 평면, 조각, 설치 등 다양한 매체로 풀어내며, 기술과 문화
가 교차하는 지점을 시각화했다.



이 전시는 갤러리 명칭인 ‘제로원ZeroOne’의 의미에서 출발했다. ‘제로원’은 무한한 가능성과 완성의 조합이다. ‘0’는 아무것도 없기에 가능성을 품은 시작점이고, ‘1’은 실현과 완성의 상태를 뜻한다. 즉, 제로원이라는 이름은 무에서 출발해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 가능성을 실현하는 공간을 의미한다. 한화문화재단은 ‘Zero(영)와 ‘One(원)’의 결합은 작가들의 창작 여정이 멈추지 않고 ‘영원’히 이어지기를 바라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으며, 그 여정에 재단이 지속적으로 함께하겠다는 다짐이라고 설명했다.

예술가가 성장하는 열린 광장

예술가의 성장은 고립된 밀실이 아닌, 끊임없는 교류와 충돌이 일어나는 열린 광장에서 이루어진다. 삼성문화재단은 예술가들

삼성문화재단 ‘파리 시테 레지던시’의 오픈 스튜디오

이 글로벌 네트워크 속에서 작업 세계를 확장할 수 있는 물리적·심리적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파리 시테 레지던시’ 입주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파리 시테 레지던시는 1965년 5월 20일 공식 개관한 이래 세계적인 예술가들이 머물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해 온 곳이다. 시테 국제예술공동체가 파리 중심부 마레 지구와 몽마르트르 언덕에 총 310개의 주거형 작업실을 운영하며 매달 300명 이상, 연간 1,000여 명의 예술가를 전 세계에서 맞이한다. 시각예술, 음악, 무용, 문학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이 일상적인 공간에서 우연히 마주치며 교류한다. 특히 매주 수요일 저녁마다 열리는 ‘오픈 스튜디오Portes ouvertes’는 입주 작가들이 큐레이터, 갤러리스트, 동료 작가들에게 직접 작품을 소개하고 다학제적 협업을 도모하는 시테 교류의 꽃으로 불린다.

삼성문화재단의 ‘파리 시테 레지던시’ 입주지원

삼성문화재단은 1996년부터 시테 국제예술공동체의 작업실을 장기 임대해 한국의 역량 있는 작가들을 매년 파견해 왔다. 조용신, 윤애영, 금중기, 한성필, 로와정, 전소정, 오민, 김아영, 엄지혜, 강민숙, 박지희, 장효주, 이은새 등 총 27 명의 작가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 파리에서 활동했다. 레지던시 프로그램은 예술가에게 단순히 작업 공간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다. 삼성문화재단은 예술가가 세계의 예술적, 문화적 맥락과 충돌하고 융합하는 ‘시간’을 선물하는 것이 레지던시 입주지원의 본질이라고 설명했다. 입주 작가는 6개월간의 레지던시 생활을 통해 시테가 제공하는 문화적 인프라와 네트워킹의 가치를 체감한다. 2025년 입주 작가로 선정된 장효주 작가는 “수많은 미술관과 갤러리, 도서관, 식물원 등 파리의 풍부한

‘파리 시테 레지던시’의 사보느리 공방 방문

한 문화 인프라를 가까이 누리며 작업의 영감을 폭넓게 확장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시테 측에서 기획한 ‘사보느리 공방-국립 가구청 방문’ 프로그램에 참여해 장인들의 전통적인 테피스트리 제작 방식과 체계적인 재료 보관 시스템을 확인한 시간을 매우 흥미롭고 값진 배움이었다고 회상했다. 2026년 레지던시 입주 작가로 선정된 한재석 작가도 큰 기대를 드러냈다. 음향 장치를 기반으로 한 사운드 설치와 퍼포먼스로 주목받고 있는 한재석 작가는 파리라는 도시 전체를 거대한 피드백 시스템으로 삼아 다차원적인 실험을 전개할 예정이다. 작가는 “이번 레지던시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 〈나를 미궁 속에 밀어넣는 행위〉를 발전시키고 싶다. 또, 현지 사운드 기관인 IRCAM, INA-GRM과의 교류를 통해 공간음향 연구도 심화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교토 마로니에갤러리에서
개최한 전시
《스페이스 후지필름 코리아》

후지필름코리아 ‘글로벌 마일리지상’

후지필름코리아는 사진 문화 저변을 넓히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쳐왔다. 사진 작품 공모전과 전시회를 열고 작품집을 펴내며 작가들의 교류를 이끄는 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내 작가들의 해외 활동이 새로운 창작의 영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 사진 분야의 국제교류 확대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디지털 플랫폼이 보편화되면서 사진예술의 글로벌 접근성은 획기적으로 높아졌다. 하지만 여전히 국제교류는 전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작가들은 네트워크를 확장하기 위해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는 점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 같은 여건에서 후지필름코리아는 국내 작가들이 국제 무대로 진출할 교두보를 마련하고자 ‘글로벌 마일리지상’을 신설했다. 공모를 통해 역량 있는 작가를 선정하고 해외 전시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제1회 글로벌 마일리지상’은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만 39세 이

하의 한국 작가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해 <믿음, 소망, 사랑>을 출품한 최요한 작가를 수상자로 선정했다. 수상자 전시는 일본 교토에서 열리는 국제 사진 축제 ‘교토그라피’의 공식 연계 프로그램 ‘KG+’와 협력해 진행했다. KG+는 교토 전역의 갤러리와 문화공간에서 다양한 전시를 선보이는 국제 사진 플랫폼이다. 올해는 5월 9일부터 17일까지 교토 마로니에 갤러리에서 ‘후지필름 포토페스타 2026’ 글로벌 네트워크 전시를 개최하고 수상작을 소개했다. 후지필름코리아는 ‘글로벌 마일리지상’ 신설을 계기로 국내 작가들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외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과 WFIMC 국제포럼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K-컬처와 세계 문화예술계의 접점을 넓히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은 시각예술 분야에서 한국 작가의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잡았다. 1995년 이탈리아 베니스의 자르디니공원에 26번째 국가관으로 건립된 이래 역동적인 한국 현대미술과 건축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2024년에는 한국관 30주년을 앞두고 역대 작가 36명(팀)의 작업을 망라한 특별전 《모든 섬은 산이다 Every Island is a Mountain》를 개최해 한국 동시대 미술의 진면목을 보여주었

2026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전경 ©김동환



다. 올해는 제61회 국제미술전에 노헤리·최고은 작가가 대표작가로 참여한다.

음악 분야에서는 콩쿠르 참가, 해외 공연 등의 국제교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음악계와 세계 음악 생태계의 연결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지난해 국제음악콩쿠르세계연맹WFIMC과 공동으로 ‘비온드 더 스테이지 2025Beyond the Stage 2025’ 포럼을 서울에서 개최했다. 루체른 페스티벌의 대표를 역임한 미하엘 헤플리거, 반 클라이번 국제 음악 콩쿠르를 운영하는 자크 마르키스 외 WFIMC의 핵심 인사들이 대거 방한한 가운데 연주자의 해외 무대 데뷔·국제 매니지먼트·브랜드 전략 등 글로벌 커리어 개발을 위한 전 영역을 포럼에서 다뤘다. 또한 올해는 이 행사의 후속 프로젝트 ‘WFIMC 국제포럼’ 참가자를 선발해 파견할 계획이다.

도전할 기회, 꿈의 무대를 위한 메세나

한국메세나협회는 한국 클래식 인재에 대한 믿음을 토대로 회원사들의 뜻을 모아 ‘국제음악콩쿠르 출전 지원사업’과 ‘카네기홀 데뷔 콘서트 지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국제음악콩쿠

르 출전 지원사업’은 세계적 권위의 콩쿠르 본선에 진출한 연주자를 지원한다. ‘2022년 반 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본선 진출자 4인을 지원하면서 시작되었고, 당시 우승을 차지한 피아니스트 임윤찬에게 KT&G장학재단의 후원까지 연결한 바 있다. 매년 5인 내외로 지원자를 선정해 콩쿠르 출전 경비를 지급하고 후속 지원을 연계한다.

‘카네기홀 데뷔 콘서트 지원 프로젝트’는 미국 코리아 뮤직 파운데이션과의 공동 기획으로 매년 1명의 연주자를 미국 클래식 시장에 소개한다. 2024년 첼리스트 최하영, 2025년 피아니스트 선우예권에 이어 올해는 클라리네티스트 김한이 카네기홀 젠켈홀에서 연주자로서 꿈꿔오던 무대를 펼쳤다. 역량 있는 음악가가 세계에서 활약하기를 바라는 메세나 기업들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콩쿠르 출전과 카네기홀 데뷔는 예술가의 음악 여정에 의미 있는 이정표를 세우는 일이다. 예술가가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관문 앞에서 망설이거나 물러서지 않고 당당히 뛰어넘을 수 있도록 기업들은 진심 어린 응원을 보내며 위대한 도전과 성장의 서사에 동행하고 있다. 

‘카네기홀 데뷔 콘서트
지원 프로젝트’ 세 번째
아티스트 김한의
마스터 클래스 현장

한국형
메세나의
새 지평을 향해

문화예술 분야 공공지원이 달기 어려운 곳까지

오늘날 한국형 메세나가 지닌 가치와 역할을 다시 살펴보는 작업은 필요하다. 단순히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현황을 정리하는 차원이 아니라, 예술 생태계 안에서 민간 후원이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가를 근본적으로 질문해야 하기 때문이다.

글 김진각 성신여대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 사진 제공 KT&G장학재단, 금호문화재단, 인천국제공항공사, 두산연강재단, CJ문화재단

‘한국형 메세나’의 가치와 방향성

최근의 메세나는 공연과 전시를 후원하는 전통적 방식에 머물지 않는다. 유소년 예술교육과 신진 예술가 육성, 해외 진출과 국제 네트워크 지원까지 그 영역이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다시 말해 메세나는 완성된 예술 후원을 넘어 한 명의 예술가가 성장하고 세계와 연결되기까지의 긴 과정 전체를 함께 바라보기 시작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국형 메세나’의 가치와 방향성을 살피는 일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주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첫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공공지원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문화예술 후원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하는 점이다. 둘째,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에서 이른바 ‘메세나법’으로 불리는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실제로 한국형 메세나의 성장과 발전에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다. 두 논점은 결국 한국 메세나의 향후 방향성에도 연결된다. 이에 대한 논의에 앞서, 메세나의 기본 정신과 특성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필란트로피에서 예술 생태계의 파트너십으로

메세나는 기본적으로 박애 정신 또는 공리주의를 의미하는 필란트로피[philanthropy]에 근거한다. 대가를 전제로 하는 협찬 개념의 스폰서십과는 구분되는 시혜적 성격의 지원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1967년 석유 재벌 록펠러 재단의 주도로 설립된 미국 기업예술지원위원회BCA를 시작으로 프랑스와 영국 등 주요 국



KT&G장학재단의 '발레 마스터 클래스'

가에서 메세나 관련 기구가 잇따라 설립되었는데, 이들이 공통으로 내세운 슬로건은 ‘문화예술을 통한 아름다운 사회에 기여’였다.

주요 국가 메세나 기구들이 강조한 것은 기업과 예술의 장기적 파트너십이었다. 여기서 말하는 파트너십은 단순 협찬과는 다르다. 기업과 예술단체, 예술가가 공익적 가치를 공유하며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는 방식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업과 예술의 관계는 일방적 지원 구조를 넘어 예술 진흥이라는 공동 목표를 함께 만들어가는 동반자 관계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오늘날 이러한 메세나의 의미는 더욱 확장되고 있다. 과거에는 공연장이나 미술관 운영, 개별 공연과 전시 후원이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예술 생태계의 성장 구조 자체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나타난다. 유소년 오케스트라와 예술영재 교육, 신진 작가 레지던시와 국제 콩쿠르 지원처럼 예술가의 성장 과정 전반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늘고 있다.

《2025 금호영재오프닝콘서트·이현정 바이올린 독주회》



‘한국형 메세나’의 성과

우리나라 기업들은 선진국 못지않게 문화예술 분야 지원 규모를 꾸준히 확대하며 메세나의 가치와 역할을 구현하고 있다. 한국메세나협회가 실시하는 조사에 따르면 2024년 국내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규모는 2,125억 2,000만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기업이 운영하는 공연장과 복합문화공간, 미술관 등의 인프라 지원이 1,201억 원으로 전체의 56.5퍼센트를 차지했고, 미술·전시(318억 원), 클래식(214억 원), 문화예술교육(133억 원), 국악·전통예술(40억 원), 뮤지컬(14억 원) 등의 분야에도 지원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데이터는 최근 K-컬처가 글로벌 문화현상으로 주목받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K-컬처가 한국적 정서를 기반으로 진화하면서 세계와 연결되는 유연한 문화 시스템이라면, 한국형 메세나는 그 기반을 지탱하는 역할을 일정 부분 수행해왔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공공지원이 상대적으로 미치기 어려운 창작 초기 단계와 실험적 분야에서 메세나의 역할은 더욱 두드러진다. 예컨대 CJ문화재단은 창작뮤지컬과 독립·예술영화, 인디음악 분야의 젊은 창작자들을 꾸준히 지원해 문화산업의 저변 확대와 건강한 창작 생태계 형성에 기여해왔다.

‘인천공항 온-아트 유스 오케스트라’의 합주 교육



공공지원 확대와 메세나의 역할

한국형 메세나의 가치와 역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 지원과의 관계 속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 이는 메세나의 발전 방향과도 직결된 문제다. 우리나라의 문화예술 분야 공공지원 규모는 세계 주요 국가와 비교해도 적지 않은 수준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비중이 높아 문화예술 현장에서 체감하는 공공지원의 영향력은 상당하다. 2026년 기준 문화예술진흥기금 규모만 5,160억 원에 달하며, 일반회계를 포함한 전체 문화예술 관련 공공지원은 4조 원대를 넘어선다.

이처럼 공공지원 규모가 확대되는 상황에서도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이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인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메세나는 단순히 공공지원을 보완하는 역할에 머물지 않고, 민간이 주도하는 또 다른 형태의 공공지원, 즉 ‘제2의 공공지원 섹터’로 기능할 수 있다. 장기적 관점의 예술가 육성, 실험적 창작 지원, 국제 네트워크 형성 등은 단기 성과 중심의 공공지원 체계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분야에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

메세나가 스스로 지평을 넓힐 때

메세나는 공공지원과 차별화된 전략으로 공공지원 영역과 겹치지 않는 곳을 향해 지평을 넓혀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충분히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의식적으로 살피고, 미래지향적 지원 구조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기업이 보유한 문화시설 운영 지원에 집중된 기존 구조를 벗어나 연극과 전통예술, 창작뮤지컬 등 장기적 육성이 필요

① 신진 예술가 지원사업을 펼치는 두산갤러리의 노혜리 작가 전시

② 젊은 창작자를 지원하는 CJ문화재단의 20주년 기념 콘서트 무대

한 순수예술 분야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공공성을 강화하고 메세나의 위상을 높일 수 있다. 예술가의 성장 경로를 단계적으로 연결하는 지원이 지금보다 늘어야 한다.

메세나 고도화를 위해서는 정책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기업의 문화예술 후원 참여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분야의 공공지원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장치로서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특히, 문화예술 기부금 세액 공제와 기업의 문화예술 활용 교육훈련비 세액 공제, 문화기업업무추진비 손금 산입 확대 등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논의는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30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 메세나는 꾸준히 새로운 시도를 이어왔다. 지원 규모만 커진 것이 아니라 예술 생태계를 풍성하게 가꾸는 방향으로 역할을 확대하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숨은 가능성을 발견하고, 성장의 시간을 견디게 하며, 세계와 연결되는 순간까지 함께하는 시스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민간기업의 역량과 헌신에만 기댈 수 없다. 한국형 메세나의 다음 진화를 위한 정책 변화와 지원을 기대한다. 

SPOTLIGHT

퐁피두센터 한화가 2026년 6월 개관했다. 63빌딩의 수직적 구조와 대비되는 수평적 형태의 건축물은 ‘빛의 상자’ 콘셉트를 구현했다.

세계적 미술관의 서울 개관으로 한국 문화예술의 역동성을 새삼 실감한다.

이번 호 ‘SPOTLIGHT’에서 소개하는 게임회사들, 클라리네티스트 김한, 설립 20주년을 맞은 CJ문화재단과 프랑스의 아트익스플로러재단 이야기도 메세나가 끊임없이 교류하고 변화하는 예술의 생명력과 함께 호흡하고 있음을 전한다.

 Centre Pompidou
Hanwha



스마일게이트 퓨처랩의
어린이 자율창작 스튜디오
'팅커편' 활동

새로운 예술을 위한 기술과 상상력

게임회사의 도전과 메세나

현대예술은 스스로의 경계를 끊임없이 해체하고 확장하며 진화해왔다. 변기, 통조림, 모니터처럼 예술과 거리가 멀었던 것들이 변화의 촉매제였다. 오늘날 게임 속의 새로운 이야기, 캐릭터, 기술은 예술을 또 어떤 차원으로 안내할까. 게임 분야의 메세나는 후원 이상의 기대를 갖게 한다.

글
편집부

사진 제공
넥슨재단,
스마일게이트 퓨처랩,
크래프톤,
NC문화재단

게임의 가능성을 믿는 넥슨의 '보더리스'

오늘날 게임은 거대한 종합예술로서 대중과 호흡한다. 예술적이라고 평가받는 게임에는 시각적 미학을 구현하는 그래픽 아트, 서사를 이끄는 문학적 시나리오, 오케스트라의 압도적인 사운드까지 이용자의 몰입을 극대화하고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는 요소가 가득하다. 이 요소들은 기술과의 융합으로 표현 영역을 넓히며, 창의적인 세계관 속에서 이용자와 상호작용한다.

게임회사들은 게임과 예술이 기존의 영역을 넘어 상호 침투하는 계기를 만들고 있다. 게임은 예술로 인해 더 완성도 높은 미감을 추구하고, 예술은 게임의 문법을 창작에 활용하는 한편으로 게임을 즐기는 젊은 세대와의 접점을 넓힌다. 넥슨재단의 문화예술사업 '보더리스BORDERLESS'는 게임과 예술의 경계를 지우는 대표 사례로 손꼽힌다. 이 사업은 누구나 게임으로부터 영감을 얻고 자신을 표현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술가가 될 수 있다는 믿음 위에서 출발했다.

1
넥슨재단의
《제1회 보더리스 공연:
PLAY 판》

2, 3
크래프톤의 ‘펍지
오늘전통협업 컬렉션’

게이머와 전통예술 애호가 한자리에

‘보더리스’는 게임 IP를 활용한 예술가의 실험적 창작을 지원한다.

2021년 공모를 거쳐 2022년 무대에 올린 《제1회 보더리스 공연: PLAY 판》은 전통예술 기반의 새로운 창작공연을 개발한 프로젝트다. 공모전 참가자들의 상상력은 자유분방했다. 창작팀 ‘현대연희 prototype21’은 게임 ‘메이플스토리’ 속에서 이용자를 위해 희생된 몬스터를 위한 씃김굿 공연 《[필수]극락왕생》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결선에 나란히 오른 두 작품도 신선했다. 창작팀 ‘보쑈’는 게임 ‘카트라이더’를 전래동화로, ‘플레이 오케스트라’는 게임 ‘바람의나라’를 오케스트라와 마당극으로 풀어냈다.

이 실험적인 무대들은 2022년에 단독 공연과 합동 갈라공연 형식으로 세종문화회관 무대에 올랐는데, 게이머와 전통예술 애호

가가 객석에 함께하는 이색적인 풍경을 연출했다. 2024년에 진행한 ‘제2회 보더리스 Craft판’도 게이머와 예술 향유층의 관심을 한데 모았다. ‘제2회 보더리스-Craft 판’은 게임과 전통 공예의 만남을 표방한 프로젝트다. 2024년에는 국가유산진흥원과 협력해 무형유산 전승자와 현대공예가들이 넥슨 게임을 주제로 전통 공예품을 제작하고 덕수궁 덕홍전에서 열린 ‘제2회 보더리스 Craft판 《시간의 마법사: 다른 세계를 향해》 전시에서 공개했다. 넥슨은 전시 굿즈 판매 수익금 전액을 다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신진예술가 양성 지원사업에 기부하고, 전통미술공예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진행해 2025년 경복궁 생물방에서 《BORDERLESS - 전통, 차원의 문을 열다》 전시를 개최했다.

크래프톤, ‘배틀그라운드’의 세계관을 소장품으로

‘배틀 로얄’의 세계적 열풍을 주도한 크래프톤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오늘전통협업’ 사업에 참여해 게임 IP의 새로운 활용을 모색했다. 단순히 소비되는 콘텐츠의 영역을 넘어 누구나 소장하고 싶어하는 예술 오브제로 확장하기 위한 시도다. 크래프톤은 게임 IP ‘PUBG: 배틀그라운드’를 전통 공예 및 디자인 언어로 재해석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창작자들과 협업해 새로운 공예 상품으로 ‘펍지PUBG 오늘전통협업 컬렉션’을 선보였다. 디자인 스튜디오 ‘슈퍼포지션’과의 협업은 게임 내 상징적인 공간인 ‘블루존’의 새로운 해석에 집중했다. ‘블루존’이라는 공간을 전통 자개에서 착안한 ‘디지털 자개’로 해석해 전통 오브제인 병풍으로 구현하고 공간의 요소들을 컵과 접시 세트에 담아냈다. 공예팀 ‘악티크’는 전통 공예품을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라이프스타일 굿즈로 확장하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배틀그라운드’ 게이머들에게 승리의 상징이 된 치킨을 액막이 굿즈로 제작하는 등 게임 IP의 상징성과 전통 공예의 조형미를 결합한 상품들을 선보였다.

미래 세대를 위한 창의환경의 기준, 스마일게이트 퓨처랩

게임회사들은 미래 세대와 소통하며 창작 환경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새로운 매체나 모델을 개척하고 있다. ‘크로스파이어’, ‘로스트아크’ 등 글로벌 게임 IP를 보유한 스마일게이트는 미래 세대가 고유한 가능성을 발견하고 주체적으로 성

장하는 창의·창작 플랫폼 ‘스마일게이트 퓨처랩(이하 퓨처랩)’을 운영 중이다. 퓨처랩이 고안하고 증명해 온 ‘창의환경’은 정답을 가르치거나 주입식 교육을 탈피하는 차원을 넘어선다. 열정을 바탕으로 하고 싶은 프로젝트를 선택하고, 동료와 상호작용하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유희하듯 창작에 몰입하는 놀이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퓨처랩의 본질적인 지향점이다. 이곳에서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들은 결과의 완벽함 대신 스스로 배움의 주체가 되는 과정에 집중하게 된다.

이 고유한 철학은 기술과 예술이 융합된 창작 스튜디오를 통해 사회적 임팩트로 발현된다. 어린이 자율창작 스튜디오 ‘팅커풀TinkerPOOL’과 청소년 공간 ‘팅커버스TinkerVERSE’는 참가자들이 주도적으로 아이디어를 시각화하고 실험하는 거점이다. ‘청소년 AI 영상 창작 워크숍’은 기술 교육을 넘어, 미래 세대가 인공지능을 도구 삼아 자신만의 관점과 세계관을 온전히 표현할 수 있도록 이끈다. 동료와의 피드백, 멘토링을 거쳐 완성도를 높인 창작물은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 ‘퓨처랩 특별관’을 통해 대중과 만난다.

AI의 가속화로 인간 고유의 창의성이 무엇보다 중요해진 시대, 퓨처랩은 미래 세대가 스스로 사유하고 창조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독보적인 ‘창의환경’이자 글로벌 창작 플랫폼으로서 그 사회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NC문화재단의 ‘프로젝토리’에서 해야 하는 일

게임회사의 메세나는 장르와 형식으로 정의되지 않고 어느 방향으로든 확장 가능하다는 점에서 개성적이다. NC문화재단은 청소년을 위한 창의 인큐베이터 프로젝트리Projectory에서 예술, 기술, 삶을 아우르는 창의적 도전을 지원한다. 집과 학교 밖 ‘제3의 공간’으로서 미래 세대가 안전하게 창의성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프로젝트리의 목표다. ‘프로젝토리 해화’에 이어 지난 1월에는 ‘프로젝토리 성남’을 새롭게 열었다.

프로젝토리는 수평적 소통을 지향한다. 모든 참여자가 나이, 학년, 지위로 서로를 구분하지 않으며 닉네임과 수평적 언어를 사용한다. 개인 활동 외에도 오픈 워크숍, 프로젝트 그룹 등으로 상호 교류의 폭을 넓히고 있다. 전문가와 함께 AI 기반 창작, 그림자극 만들기 등 다양한 주제로 오픈 워크숍을



4
스마일게이트 퓨처랩의
청소년 자율창작 스튜디오
‘팅커버스’ 활동

5, 6
NC문화재단 ‘프로젝토리’
활동

진행하고 멤버, 크루, 전문가가 장기간 함께하는 그룹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난해에는 72명의 참가자가 7개 그룹을 이루어 옷 제작, 밴드 공연, 보드게임 만들기 등을 실행했다. 프로젝트리에서는 상상하는 무엇이든 프로젝트가 된다. 게임 개발, 생태 연구, 안무 창작, 영상 편집, 나만의 행복 찾기까지 해보고 싶은 모든 것을 시도하도록 허용된다. NC문화재단은 참가자가 프로젝트리에서 꼭 하도록 요구받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실패의 경험’이라고 설명한다. 과감한 도전에 따르는 작은 실패의 경험이 더 자유로운 상상과 창의적 영감의 밑거름이 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창작자의 꿈을 지켜 온 20년

CJ문화재단

글
최혜정

사진 제공
CJ문화재단

CJ문화재단의 오프라인 플랫폼인 CJ아지트 광
홍창은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한 한 해를 보내고 있
다. 2월부터 5월까지 열린 재단 설립 20주년 기
념 콘서트 시리즈 《드림 투 스테이지Dream to Stage》
는 알찬 프로그램, 화려한 라인업으로 젊은 문화
소비자들의 발걸음을 불러들였다. 그만큼 ‘젊은
창작자들의 문화꿈지기’를 표방하는 CJ문화재단
의 다음 20년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다.



20년 전 티켓 가격 2만 원으로 만나는 무대

서울 홍대 인근에 위치한 CJ아지트 광흥창의 핵심 시설은 스탠딩 250석의 공연장이다. 규모는 아담하지만 그 안에서 펼쳐지는 라이브 공연의 열기는 폭발적이다. 문화예술의 새로운 트렌드를 만드는 공간이라는 상징성도 크다. 2009년 개관 이래 ‘홍대 라이브 클럽 데이’, ‘튠업 스테이지’ 기획공연 등을 통해 인디 뮤지션의 꿈의 무대로 자리매김했고 2017년에는 녹음 스튜디오와 아티스트 커뮤니티 라운지를 신설, 음악 전용 공연장 겸 창작 스튜디오로 거듭났다. 아티스트는 자유롭게 창작하고 관객은 새로운 공연 경험을 마음껏 누리는 ‘행복한 놀이터’로 자리잡았다.

이곳에서 CJ문화재단 20주년 기념 콘서트 시리즈가 열린다는 소식은 일찌감치 젊은 문화예술 애호가들 사이에서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CJ문화재단이 지원한 작품과 아티스트를 망라한 프로그램은 하나같이 알차고, 20년 전과 같은 2만 원의 가격 역시 감동적이라는 반응이 쏟아졌다.

새로운 문화 탄생 20년을 결산하는 자리

20주년 기념 콘서트 시리즈는 2월 25일과 26일, 뮤지컬 창작 지원 프로그램 ‘스테이지업’의 특별한 무대 《스테이지업: 뮤지컬 갈라 콘서트》로 포문을 열었다. ‘스테이지업’을 통해 탄생한 《홍련》, 《여신님이 보고 계셔》 등 창작뮤지컬 6편의 주역들이 대표 뮤지컬 넘버를 열창하고 작품 개발 과정 등 풍성한 이야기로 관객들과 소통했다.

3월부터 5월까지의 인디 뮤지션 지원 프로그램 ‘튠업’, 영화 창작자를 지원하는 ‘스토리업’의 콘서트 시리즈가 이어졌다. 《튠업: 라이브 스테이지》는 아도이, 최유리, 홍이삭, 오존, 카더가든 등 화려한 라인업을 선보였고, 《스토리업: 컬처 토크》는 영화·음악·문화예술산업의 주요 이슈를 주제로 한 전문가 대담을 진행했다.

콘서트 시리즈 외에도 풍성한 프로그램이 20주년의 의미를 더했다. 3월에는 홍대 인디 신을 대표하는 음악 축제 ‘라이브 클럽 데이’와 함께하는 《라이브 클럽 데이: 드림 투 스테이지》 관객 입장

1 CJ문화재단 20주년 기념
《라이브 클럽 데이: 드림 투 스테이지》 관객 입장



1

이지》를 개최했고, 5월에는 성수동에서 창작자의 꿈 실현을 위한 20년 여정을 체험형 전시 공간으로 구현한 팝업스토어를 열어 20주년이라는 특별한 순간을 기념했다.

문화산업을 향한 믿음과 의지

CJ문화재단은 2006년 5월, ‘문화 산업화를 통해 국가에 기여한다’는 문화보국文化報國 철학과 ‘기업은 젊은이의 꿈지기가 되어야 한다’는 사회공헌 철학을 토대로 출범했다. ‘문화가 없으면 나라도 없다’는 이병철 선대회장의 가르침을 이어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역사적으로 경제강국이 되기 위한 조건은 문화강국이다. 우리나라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결국 문화상품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그룹의 창업이념인 사업보국을 문화산업으로 이루어야 한다.”라는 믿음을 기업 안팎에 전하고자 했다.

리더들의 의지는 CJ그룹의 ‘문화 산업화’와 CJ문화재단의 ‘문화 사회공헌’이라는 두 개의 축으로 진화·발전했다. CJ그룹이 1995년 드림웍스 투자 이후 문화 산업화와 K-컬처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주도해왔다면, CJ문화재단은 2006년 설립 이후 문화산업의 저변 확대와 건강한 문화 생태계 조성에 힘써왔다. 특히 CJ문화재단은 문화예술사업 방향을 ‘문화키움’과 ‘문화나눔’으로 설정하고, ‘진정성, 지속성, 사업 연계, 임직원 참여’라는 네 가지 실행원칙 아래 다양한 장르의 신예 창작자 발굴·지원에 앞장섰다.

지난 20년간 뮤지션 218명(85팀), 시나리오 작가 및 감독 215명, 뮤지컬 작가 및 작곡가 147명을 지원했고 누적 후원금은 917억 원에 달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2025년 2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CJ문화재단은 2023년 기준으로 112개 기업문화재단 중 문화예술 후원 기여도 1위를 기록했다. 후원 지출액 등의 정량 분석과 재단의 운영, 사업내용 등을 토대로 한 정성 분석을 종합한 결과다.

신예 창작자의 꿈을 이루는 관문

현재 CJ문화재단은 잠재력 있는 신예 창작자를 발굴해 그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문화키움’에 사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문화 다양성을 확보해 다양한 장르가 조화롭게 발전하는 건강한 문화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음악·영화·공연 분야 창작자를 지원하는 ‘튠업’·‘스토리업’·‘스테이지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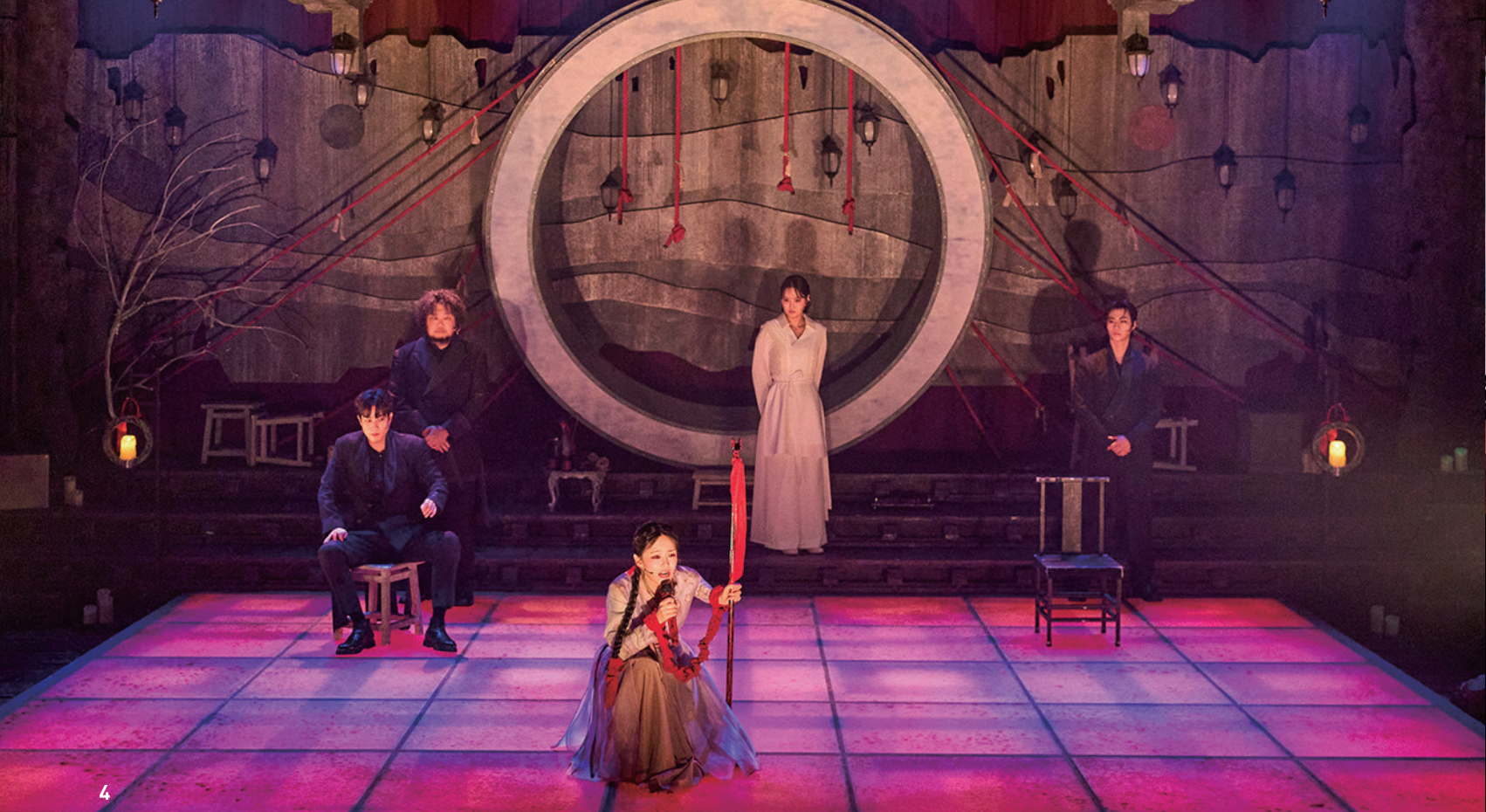


이 대표 사업이다. 재단 설립 초반, ‘문화키움’ 사업의 대표격이었던 ‘CJ영페스티벌’이 연극·무용 등 순수예술 창작자가 지 포괄하는 형태였다면, 2010년부터는 대중문화 소외 영역 중 음악·영화·공연 창작자를 집중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또 2017년부터 사업 목표를 ‘신예 창작자의 상업시장 진입’에서 ‘상업시장에서의 실질적 성공’으로 변경하고, 신예 창작자들이 상업시장에 연착륙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CJ문화재단은 창작자 중심의 실질적·체계적 지원을 지향한다. 특히 전문가 멘토링, 해당 분야 관계자의 모니터링·피드백 같은 차별화된 시스템, 창작자의 성장 단계에 따른 맞춤형

2 《튠업: 라이브 스테이지》
아도이 공연

3 《튠업: 라이브 스테이지》
최유리·홍이삭 공연



4



5

④
스테이지업 창작뮤지컬
《홍련》

⑤
스테이지업 창작뮤지컬
《라흐 헤스트》

형 지원이 특징이다. 한 번의 지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창작자들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이어가며 성장의 순간에 도움이 손길을 내미는 방식이다. 이 같은 세심한 배려는 ‘툄업·‘스토리업·‘스테이지업’이 각 분야 신예들의 등용문으로 자리매김한 이유이기도 하다.

‘진정성’과 ‘지속성’이 만든 의미 있는 성과

CJ문화재단은 오랜 시간 흔들림 없이 창작자의 꿈과 재능을

믿고 함께하는 진정성 가득한 행보를 이어오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인디 뮤지션을 발굴·지원하는 ‘툄업’의 경우, 이진아(9기), 멜로망스(17기), 새소년(18기), 카더가든·조지·아도이·소수빈(19기), 웨이브투어스(21기), 홍이삭(22기), 최유리(23기), 한로로·지소쿠리클럽(24기) 등 우리 대중음악계의 빛나는 별이 된 원석들을 대거 발탁했다. 2025년 기준으로 총 85팀의 인디 뮤지션이 ‘툄업’을 통해 음반 발매와 중대형 공연 개최, 해외 무대 진출 등의 기회를 얻었다.

재능 있는 시나리오 작가와 단편영화 감독을 발굴·지원해 온 ‘스토리업’ 역시 주목할 만한 작품들을 탄생시켰다. <나의 PS 파트너>(2012), <해빙>(2017), <아이 캔 스피크>(2017) 등이 극장 개봉해 좋은 평가를 받았고, 2024년에는 임유리 감독의 단편영화 <메아리>(2023)가 제77회 칸영화제 단편영화 부문 ‘라 시네프 La Ciné’에 초청되었다. 변성현, 유종석, 이상민 등 영화계가 주목하는 신예 감독들을 다수 배출한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과다.

역량 있는 뮤지컬 창작자를 발굴·지원하는 ‘스테이지업’은 국내 뮤지컬계에 창작뮤지컬 붐을 일으킨 데 이어, 글로벌 무



6

대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 중 《여신님이 보고 계셔》는 벌써 9번째 시즌 공연을 개최하며 통런 중인 작품이다. 일본·중국·영국 등 해외에서도 호평 받으며 한국 창작뮤지컬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했다. 《라흐 헤스트》, 《홍련》 역시 같은 길을 걷고 있다. 《라흐 헤스트》는 일본 도쿄에서, 《홍련》은 중국 상하이·광저우 등지에서 라이선스 공연을 성공리에 마무리하며 글로벌 시장 진출을 본격화했다.

K-컬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CJ문화재단의 창작자 지원사업은 이미 국경을 넘어 해외로 그 영역을 확장해나가고 있다. 미국 버클리 음대 등 세계 유수의 실용음악대학에 재학 중인 한국인 유학생을 지원하는 ‘CJ음악장학생사업’, 중국과 베트남의 젊은 영화인을 발굴·지원하는 ‘청년꿈키움 단편영화 지원사업’, 복미를 기반으로 활동 중인 한국계 영화감독을 지원하는 ‘CJ & TIFF K-Story Fund’ 등은 세계를 무대로 활동할 문화인재를 키워내며 K-컬처의 글로벌 확산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문화나눔’과 순수예술 지원도 꾸준히 진행 중이다. 툄업 뮤지션과 CJ음악장학생을 강사로 위촉해 소외 아동청소년에



7

게 음악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툄업음악교실’은 나눔의 선순환을 일으킨다. 연말에는 교육 참가자들이 갖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선보이는 음악회를 열어 음악적 성취를 점검하고 더 많은 이와 문화예술을 나누고 있다.

‘1기업 1미술작가 지원사업’, ‘카네기홀 데뷔 콘서트 지원 프로젝트’ 등 한국메세나협회와 함께하는 순수예술 지원사업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 설치미술과 조각 분야의 정정주·오제성 작가와 일대일 결연으로 작품 활동을 지원했고, 클래식 분야의 첼리스트 최하영, 피아니스트 선우예린, 클라리네티스트 김한 등 젊은 연주자들의 글로벌 무대 진출 기회도 제공했다.

우리는 문화예술의 힘이 갈수록 커지는 시대에 살고 있다. 문화예술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킨다는 믿음을 많은 이들이 공유하고 있다. CJ문화재단은 지난 20년간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창작자의 꿈과 동행했고 문화산업의 한 축을 지탱했다. CJ문화재단이 만들고자 한 창작자 중심의 선순환 구조와 건강한 문화 생태계는 오늘의 K-컬처가 딛고 선 기반이자 내일의 희망이다. 그 내일에도 CJ문화재단의 동행은 계속될 것이다. 

⑥
툄업음악교실 연말음악회

⑦
스토리업 <영성체>
제작 현장

카네기홀을 사로잡은 음색의 대가

클라리넷은 풍성한 사운드의 피아노와 화려한 고음의 바이올린만큼 솔로 무대에서 주목받는 악기는 아니다. 악기의 음역이 낮다 보니 오케스트라에서도 특유의 매력을 감지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한국의 젊은 클라리네티스트 김한의 연주는 귀하다. 김한은 솔로와 앙상블 어느 쪽이든 섬세하면서도 깊은 연주로 클라리넷이라는 악기의 존재감을 여실히 드러낸다.

클라리네티스트 김한

글
김희선
『음악자널』 편집장

사진 제공
크레디아

세상 속으로 들어간 클래식 영재

김한은 솔로와 앙상블 무대를 넘나들며 클라리넷이라는 악기의 가능성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확장해 온 연주자다. 2018년에 한국인 최초로 핀란드 방송교향악단에 입단해 부수석으로 활동했고, 2023년에는 프랑스 파리국립오페라의 클라리넷 수석 공개 오디션에 합격해 관악 부문에서는 동양인 최초 종신 수석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협연과 리사이틀 무대에서 클라리넷 레퍼토리의 다채로운 매력과 깊이를 꾸준히 선보여 왔다.

11세의 나이에 《금호영재콘서트》에서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알린 이래 김한은 다소 독특한 이력을 통해 성장했다. 보통의 클래식 영재들이 유럽 유학길에 오르는 것과 달리 김한은 예원학교 졸업 후 싱가포르로 건너가 국립예술학교를 다녔다. 영국에서도 이튼 칼리지를 거쳐 길드홀 음악연극학교에 입학했고, 독일의 뤼벡 국립음악대학에서 세계적인 거장

자비네 마이어Sabine Meyer를 사사했다.

김한은 싱가포르 국립예술학교와 영국 이튼 칼리지 시절에 대해 “10대를 10대답게 보냈다. 그 힘으로 지금 음악을 한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음악 전공생으로서 체계적으로 음악 공부를 하면서도 음악 외의 공부를 다양하게 했던 시절이다. 음악 외의 삶, 음악인이 아닌 사람과의 교류는 김한만이 가진 음악적 표현과 깊이의 토대가 되었을 것이다.

독일 ARD 국제 음악 콩쿠르에서 세계 정상급의 기량을 인정받고 유럽 무대를 중심으로 커리어를 쌓아 온 김한은 최근 국내외에서 주목할 만한 활동들로 팬들을 만나고 있다. 지난해 6월에는 LA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주최한 《서울 페스티벌》에서 작곡가 진은숙의 <클라리넷 협주곡>을 연주해 김한만의 스타일을 선보였고, 올 3월에는 KBS교향악단(지휘 마렉 야노프스키)과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을 연주해 ‘클라리넷의 장관’이라는 찬사를 이끌어냈다.



1

①
김한의 카네기홀 연주
©Nethen Park

클라리넷의 장관을 펼친 카네기홀 데뷔 무대

김한은 지난 5월 3일, 미국 뉴욕 카네기홀 데뷔 무대를 통해 자신의 음악 여정과 우리 목관계 역사에 다시 한번 새로운 이정표를 남겼다. 한국 클래식 인재의 글로벌 진출을 돕기 위해 2024년 시작된 한국메세나협회의 ‘카네기홀 데뷔 콘서트 지원 프로젝트’ 무대였다. 김한은 어릴 적부터 선망해 온 카네기홀에 그 어느 때보다 설레는 마음으로 올랐다고 소회를 밝혔다.

“피아노나 현악기에 비해 관악기는 솔리스트로서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미국 청중과 음악을 나눌 수 있어 무척 기뻐했습니다. 공연을 위해 힘써 주신 한국메세나협회와 여러 기업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김한은 이번 무대에서 카미유 생상스, 요하네스 브람스, 프랑시스 풀랑크, 레너드 번스타인, 이진용 등 프랑스, 독일, 미국,

한국의 작곡가를 다채롭게 소개했다. 클라리넷의 매력은 총천연색으로 반짝거렸고 연주자의 음악적 정체성은 강렬하게 청중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김한이 생각하는 클라리넷의 가장 큰 매력은 ‘모호함’이다. 그는 악기 고유의 음악적 아이덴티티가 다른 악기와 뚜렷이 구별되는 편이 아니다 보니 오히려 작곡가마다 클라리넷을 바라보는 시선이 매우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생상스는 클라리넷의 우아함을, 브람스는 장엄함을, 풀랑크는 익살스러움을 극대화해 작곡했는데 이런 다채로운 매력을 이번 공연에서 선보이고 싶었습니다. 또, 미국에서의 첫 리사이틀인 만큼 저를 소개할 수 있는 음악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어린 시절부터 해외 생활을 경험했고 영국, 독일, 스위스, 핀란드를 거쳐 지금 살고 있는 프랑스까지 클래식 음악 문화를 이룬 각 나라의 음악적 미학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프랑스

와 독일은 음악적으로 가장 깊이 경험한 나라라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는 한국이라는 뿌리에 대한 인식과 이번 공연의 의미에 대한 생각도 레퍼토리에 담았다.

“이진용 선생님의 <저녁 노래Song in the Dusk>는 한국적 정서와 전통이 클라리넷을 통해 표현된 작품으로, 클라리네티스트 김한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공연의 마지막은 카네기홀에서 전설적 데뷔를 했던 지휘자 레너드 번스타인의 소나타로 장식해 이번 무대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연주하며 성장하고 가르치며 배우다

카네기홀 공연 이튿날에는 코리아 뮤직 파운데이션과 뉴욕 한국문화원이 주최한 마스터클래스에 참여해 줄리아드 음악원과 맨해튼 음악대학에서 수학 중인 학생들을 지도하기도 했다. 연주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처음 경험한 미국 음악계는 김한이 주로 활동해 온 유럽과 또 다른 인상을 남겼다.

“미국에서 공부한 음악가들과 함께 연주하면서 가장 많이 배운 부분은 ‘인간적 공감’입니다. 유럽 연주자들의 가장 큰 특권은 자신이 태어나고 살아온 나라의 음악을 연주한다는 점일 것입니다. 음악의 역사적 배경이 마치 DNA처럼 자연스럽게 몸에 스며들어 있다고 느낍니다. 그에 비해 미국 음악가들은 시대적·문화적 데이터베이스는 유럽보다 부족하지만, 작곡가의 인생과 그 인간적 면모를 깊이 연구해 표현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한 개인의 감정선을 최우선으로 두고 작품을 해석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곡가의 마음 깊숙한 곳까지 다가가 그 감정을 본인만의 스타일로 풀어내는 것이 미국 음악계의 힘이 아닌가 합니다.”

김한의 음악을 이루는 것들

김한은 예술가로서, 사람으로서 경험하고 교류하는 모든 것들에 예민하다. 특히, 함께 연주하는 오케스트라 단원들이나 실내악 연주자들이 자신의 롤모델이라고 말할 만큼 사람들과 영향을 주고받으며 배우는 과정을 즐긴다. 김한은 카네기홀 공연이 자신의 삶과 음악 여정에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소중한 영감이 될 것을 믿는다. 또, 이와 같은 마음으로 다가



2



3

올 무대를 준비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도 파리국립오페라 활동과 함께 7월 부산콘서트홀 개관 공연, 평창대관령음악제 공연, 9월 대구시립교향악단 협연 등 다양한 무대에서 관객과 만날 예정이다.

“제가 끊임없이 성장하고 좋은 연주를 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은 저와 제 음악을 사랑해주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의 무게를 감당하고 싶기 때문에 매 순간 진심으로 음악에 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음악의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데 목표를 두고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다음 무대에서 좋은 음악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②
발트양상블 10주년 기념
콘서트에서 연주
©Shin-joong Kim

③
마렉 야노프스키가 지휘하는
KBS교향악단과의 협연
©KBS교향악단

매일이 ‘문화가 있는 날’인 그날까지

한국메세나협회,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요일’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1

문화, 어쩌면 남의 이야기일 수 있는 것

영화 한 편을 보러다가도 티켓값 때문에 주저하고 공연장이나 갤러리를 방문하는 일은 다른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인양 아득할 때가 있다. 몇 천 원의 혜택이라 할지라도 문화소비에 따르는 부담을 줄여주고, 사는 곳 가까이에서 열리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보러 오라고 손을 내밀어 준다면 누구나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 한번의 경험이 문화예술에 더 관심을 갖고 또 다른 경험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문화가 있는 날’은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 누구나 문화예술과 함께하는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관점을 확산한다. 문화예술의 향유층을 확대해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만드는 정책 수단이기도 하다.

한 달을 즐겁게 만드는 하루, ‘문화가 있는 날’

‘문화가 있는 날’은 문화체육관광부 주도로 2014년 1월에 처음 도입되었다. 당시 정부는 문화융성정책의 일환으로 제도를 시행하며 문화시설의 문턱을 낮추고 각종 혜택을 제공해 한 달을 즐겁게 만드는 하루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영화관·박물관·미술관·공연장·고궁 등 전국 주요 문화시설에서 할인이나 무료 관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국공립 시설에서 민간 시설과 지역 문화공간까지 참여 범위를 넓혔고 ‘구석구석 문화배달’ 같은 지역연계 사업도 운영해 왔다.

처음에는 제도의 실효성과 지속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었지만 ‘문화가 있는 날’은 비교적 단기간에 국민의 일상 속에 자리 잡았다. 할인 혜택을 이용한 영화 관람이나 문화프로그램 이용이 꾸준히 늘었



2

1
‘문화가 있는 날’ 업무협약식

2
에스-오일의 ‘문화가 있는 날’ 나눔공연

고, 무엇보다 ‘문화가 있는 날’의 지정과 운영 사항을 포함한 「문화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문화 향유에 관한 인식 전환도 이루어졌다. 문화는 더이상 사치와 여유의 상징이 아니며 국민이라면 누구나 최소한의 문화권리를 가진다는 인식이 빠르게 번져갔다.

문화가 있는 더 많은 날을 위해

‘문화가 있는 날’이 우리나라의 대표적 생활문화 캠페인으로 자리잡기까지 민간 부문의 기여도 작지 않았다. 기업들은 정책 방향과 보조를 맞추어 국민의 문화예술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메세나 프로그램들을 늘렸다. 유통기업들은 백화점, 마트, 복합문화공간 같은 생활기반시설에서 관련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신세계백화점은 낮 시간 무료 클래식 공연 《문화가 있는 날 마티네콘서트》를 시작했고, 현대백화점은 직

장인들이 무료 공연을 즐기도록 백화점 문화홀을 개방하는 ‘문화야 프로젝트’를 시행했다. 또한,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사옥 로비에서, 에스-오일은 본사 대강당에서 무료 음악회를 열어 지역민에게 문화선물을 전했다.

‘문화가 있는 날’의 주 1회 확대 시행에도 민간 부문의 역할이 중요한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한국메세나협회는 지난 3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가 있는 날’의 활성화를 위해 11개 유관기관과 추진한 업무협약에 동참했다. 회원사의 기존 활동을 ‘문화요일’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기업 후원 공연과 전시가 더욱 활발히 열리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메세나는 시민의 일상 속 문화 경험의 확산에 기여한다. 매주 수요일을 넘어 매일이 문화요일이 되는 그 날까지 메세나의 고민과 실천은 이어질 것이다. 

미술관, 바다를 달린다

프랑스
아트익스플로러재단의 꿈

르 바토 뮤지엄 Le bateau-musée, 보트 미술관이라는 이름의 선박이 2024년 파도를 가르기 시작했다. 55m 높이의 돛을 세운 47m 길이의 이 보트가 미술품을 싣고 지중해의 여러 도시를 순회하는 이유는 한 가지. 인구의 상당수가 모여 사는 해안도시의 더 많은 사람을 찾아가 예술의 촉박을 전하기 위해서다.

지중해 20개 항구를 순회하는 보트 미술관

보트 미술관을 건조한 아트익스플로러재단 Fondation Art Explor은 비즈니스 솔루션을 제공하는 다국적기업 웹헬프의 공동창업자 프레데릭 주삭 Frédéric Jousset이 설립한 비영리 문화재단이다. 재단은 '문화 격차 해소'를 미션으로 삼고 움직이는 미술 공간을 만들어 예술 접근성을 확대하는 도전에 나섰다. 그 대표 프로젝트가 세계 최초의 보트 뮤지엄이다. 주삭은 2019년 에베레스트 등정 직후, 시칠리아 리파리 Lipari 인근 바다에서 요트 항해를 하던 중에 '예술과 항해의 결합'이라는 영감을 얻었다. "60퍼센트의 인류가 해안 60km 이내에 산다. 박물관이 사람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이 보트 뮤지엄을 구상한 배경이자 철학이다.

보트 뮤지엄은 구상을 구체화해 실현하기까지 만 4년이 넘게 걸렸고 선박 건조 비용은 약 3,200만 유로(약 470억 원)에 달한다. 2024년 3월 21일, 몰타 발레타에서 출항한 배는 2026년과 2027년 가을까지 지중해 15개국 약 20개 항구를 순회하며 무료 문화축제 '아트 익스플로러 페스티벌'을 펼치고 있다.



아트익스플로러재단의 보트 뮤지엄

예술에는 국경의 눈물이 없기를

보트의 깃발도 예술작품이다. 깃발 작업을 맡은 로르 프루보스트Laure Prouvost는 2019년 제58회 베니스비엔날레 프랑스관을 대표했던 작가다. 이주·이동·국경을 주제로 비디오, 퍼포먼스, 사진 등 다양한 작업을 해온 그가 뜻에 새긴 “이상적으로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있겠죠 / 여기서는 더 이상 국경의 눈물이 없기를 꿈꿉니다(Ideally you would sea where to go / Here we dream of no more front tears.)”라는 문구는 윌트 있는 말장난이다.

작가는 이 문구를 통해 이주 문제뿐 아니라 동물, 새, 물고기 등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이루자는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한다. 또한 이 메시지는 배의 이동성과 아트 익스플로러 페스티벌의 특성, 그리고 항구를 오가며 만들어지는 연결고리를 암시한다.

보트는 출항 이후 2026년 5월 현재 11개 기항지(발레타·베네치아·마르세유·탕헤르·라바트·말라카·두러스·니스·리에카·피레우스/아테네·리마솔)에서 누적 35만 명 이상을 탑승

시켰고, 2026년 봄에는 바르셀로나(3월 26일~4월 6일)와 이비사(4월 23~29일)에 정박했다. 850명 아티스트가 보트에서 소개되었고, 약 15,000km를 항해했다. 작가와 미술 애호가, 대중의 호응에 힘입어 페스티벌 기간도 단계적으로 늘어났다. 아트익스플로러재단은 페스티벌 종료 시기를 2027년 가을까지 연장하고 향후 튀니지, 이집트, 튀르키예, 이스라엘 등 동지중해 진출도 예고했다.

루브르 명작을 소개하는 몰입형 전시

보트가 항구를 순회하며 예술 경험을 선사한다는 콘셉트도 신선하지만, 무엇보다 보트 뮤지엄의 알찬 프로그램이 새로운 구상을 성공으로 이끈 비결로 손꼽힌다. 보트는 루브르박물관의 명작들을 몰입형 미디어아트로 만날 수 있도록 소개하고, 누구나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공연 같은 부대행사도 풍성하게 제공하고 있다.

보트 선상에는 가로 16m, 폭 5m의 거대한 LED 터널 갤러리가 설치되어 있다. 이곳에서 루브르박물관과 협업한 LED 몰입 전시 《Présentes》가 펼쳐진다. <사모트라케의 니케>를 비롯한 루브르 소장품들을 디지털화한 작품을 통해 지중해 문명의 여성상을 조명하는 전시다. 이 밖에도 풍피두센터의 음악연구소IRCAM가 설계한 사운드 오디세이, 유비소프트Ubisoft가 개발한 VR <Mediterranean Wonders> 등이 무료로 제공된다. 습기에 취약한 유화 명작을 배에 태우기에는 제약 사항이 많을 수밖에 없으니, 디지털 미술을 소개하는 데 집중하는 것으로 보인다.

보트 뮤지엄은 머무는 지역마다 그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큐레이터와 협업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페스티벌의 다채로움을 더하고 지역 예술계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보트가 정박하는 부두에서 장 미셸 빌모트가 설계한 모듈식 컨테이너 빌리지를 활용해 사진·현대미술 전시와 콘서트·워크숍·교육 프로그램도 열고 있다.

예술의 그린피스 꿈꾸는 아트익스플로러재단

프레데릭 주삭은 풍피두센터의 디자인부 수석 큐레이터를 역임한 어머니 마리 로르 주삭의 영향 때문인지 기업가로 성공한 이후에는 예술 후원에 매진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웹헬프를 떠난 후에는 미술잡지를 인수하고 세계적



인 박물관의 이사회에 선임되어 활동하는 등 예술애호가, 자선가, 예술경영인으로 더 활발한 행보를 이어 왔다. 2019년 11월에는 아트익스플로러재단을 설립했다. 본부는 파리에 있고, 2021년부터 영국 런던 지부를 두고 있다.

이 재단은 “예술의 힘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모토 아래, 지리적·사회경제적·문화적 장벽 해소, 디지털·이동성 활용,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상호문화적 대화 촉진을 표방한다. 주삭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아트익스플로러재단이 문화 접근의 그린피스가 되길 바란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아트익스플로러재단이 대영박물관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타임 오디세이Time Odyssey’도 예술의 그린피스라는 꿈을 실현하는 사업이다. ‘타임 오디세이’는 어린이들이 박물관을 더욱 몰입해 경험할 수 있도록 개발한 증강현실 기반의 디지털 학습 프로그램이다. 경제적·지리적 이유로 박물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학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통비 지원까지 포함한다.

독재자의 빌라가 예술가 레지던시로

작은 회사를 글로벌기업으로 키워낸 기업이 특유의 열정과 모험심이 그대로 이식된 듯이, 아트익스플로러재단은 새롭고 실험적인 방식으로 예술을 지원하는 데 거침이 없다. 2022년부터 풍피두센터의 소장품을 프랑스 각지 주민에게 소개하는 이동 박물관 MuMO가 운영을 시작했고, 2025년 칸 영화제 기간에는 이동식 영화관 씨네모CinéMo가 출범했다. 박물관 트럭과 이동식 영화관은 보트 뮤지엄과 나란히 찾아가는 문화예술사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아트익스플로러재단은 한화문화재단 영민 해외 레지던시의 파트너 중 한 곳이다. 아트익스플로러재단은 파리 시테 레지던시 입주 지원에 이어 2024년에는 두 번째 레지던시 ‘빌라 31’을 개관했다. 알바니아의 티라나에 위치한 ‘빌라 31’은 독재자 엔베르 호자의 저택이었던 곳이다. 정권 붕괴 이후 오랫동안 폐쇄된 채 남아 있던 공간은 아트익스플로러재단과 알바니아 문화부, 티라나 시 정부의 협력을 통해 예술가와 시민이 만나는 열린 플랫폼으로 다시 태어났다.

보트 뮤지엄부터 빌라31까지 아트익스플로러재단의 메시지는 하나로 통한다. 예술은 특별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며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경험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바다를 건너고, 도시를 순회하고, 닫힌 공간을 여는 아트익스플로러재단의 실험은 메세나가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문화 접근성 확대의 모델을 제시한다. 

❶ 보트 뮤지엄의 몰입형 사운드 경험

❷ 보트 뮤지엄 전시 《푸른 하늘 아래》



❸ 아트익스플로러재단 설립자 프레데릭 주삭

❹ 프랑스 전역을 찾아가는 박물관 트럭 MuMO

《내부산책자: 안으로 안으로 끝없이 걸어가는》

신세계디에프 - 밝은방

글 김세연 한국메세나협회 A&B팀 선임

진주시립이성자미술관에서 지난해 12월 2일부터 올해 3월 1일까지 진행된 《내부산책자: 안으로 안으로 끝없이 걸어가는》 전시가 막을 내렸다. 창작단체 '밝은방'이 기획한 이번 전시는 서로 다른 감각과 경험을 지닌 창작자들의 표현 방식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데 초점을 두었다.

‘내부산책자’라는 전시명은 외부의 기준이나 평가에 의존하기보다, 각자가 지닌 기억과 감각을 따라 내면을 지속적으로 탐색해 나가는 예술가의 태도를 의미한다.

전시에는 밝은방의 창작자 김동현, 배경옥, 신동빈, 정종필의 회화 작품이 소개되었다. 김동현은 현실과 가상이 뒤섞인 도로, 노선도, 터널의 풍경을 통해 복합적인 공간 인식을 제시했다. 정종필은 뉴스 화면과 광고, 인물 이미지 등 강하게 각인된 시각 정보를 반복적으로 재구성했다. 신동빈은 아파트 단지과 건물들을 에너지 넘치는 구성으로 배열하며 도시의 구조적 이미지를 드러냈다. 배경옥은 가족과의 기억, 어린 시절의 장소, 개인적 경험에서 비롯된 이미지를 바탕으로 독자적인 시각 세계를 구축했다. 이와 함께 창작자들의 작업 과정에서 축적된 자료와 밝은방의 출판물도 아카이브 형식으로 전시되었다.

‘밝은방’은 발달·정신장애 창작자들과 함께 다양한 예술적 표현을 시도하며, 창작과 소통의 가능성을 모색해온 아티스트 그룹이다. 제도권 예술교육과 무관하게 일상 속에서 이어져 온 이들의 직관적인 예술 표현을 소개하기 위해 전시·출판물·워크숍 등을 기획해왔으며, 소설가 김효나와 시각예술가 김인경이 공동 운영하고 있다.

2022년부터 밝은방은 신세계디에프와 한국메세나협회의 ‘기업과 예술의 만남’ 사업을 통해 결연을 맺고 동행을 이어 왔다. 신세계디에프는 밝은방이 외부 환경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꾸준한 작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창작자들의 예술 활동 리듬을 지탱해주고 있다.

① 《내부산책자: 안으로 안으로 끝없이 걸어가는》 전시 전경

② 정종필 작가의 <결혼연작>

③ 김동현 작가의 작업 노트



종근당고촌 예술지상, 2026 올해의 작가 선정

종근당고촌재단 - 아트스페이스 휴

글 김세연 한국메세나협회 A&B팀 선임

“종근당고촌 예술지상은 작가들 사이에서 꼭 받고 싶고, 누군가 수상하면 함께 응원하게 되는 상입니다. 이번 선정을 계기로 새로운 시도와 고민을 이어갈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종근당고촌 예술지상 2026에 선정된 염지희 작가의 소감이다. 종근당고촌재단은 2026 올해의 작가로 김명찬·박그림·염지희를 선정하고 4월 22일, 서울 충정로 종근당 본사에서 ‘종근당고촌 예술지상 2026 올해의 작가 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올해 선정된 작가들은 동시대 회화의 흐름 속에서 실험성과 잠재력을 겸비한 작가들로, 회화의 확장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명찬 작가는 인물과 일상을 소재로 한 구상회화를 통해 조형성과 회화의 영역을 넓히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박그림 작가는 전통 불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서사성과 재현의 충위를 확장하는 작업을 선보인다. 염지희 작가는 콜라주를 주요 매체로 삼아 개인의 경험과 꿈, 인간 존재를 탐구하며 다양한 이미지와 문화적 요소를 결합해 밀도 있는 화면을 구축하고 있다. 정재정 종근당고촌재단 이사장은 “종근당고촌재단이 기존 장학사업을 기반으로 문화예술 분야 지원까지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라며 “신예 작가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종근당고촌 예술지상’에 선정된 작가에게는 3년간의 창작 지원금과 지원 마지막에 기획전시 기회가 주어진다. 이 사업은 종근당홀딩스와 한국메세나협회가 추진해온 ‘기업과 예술의 만남’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종근당고촌재단이 참여하면서 공익적 성격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사업 명칭도 ‘종근당 예술지상’에서 ‘종근당고촌 예술지상’으로 변경되었다. 한편, 오는 10월 1일부터 12일까지 세종문화회관 미술관에서 2024년 선정된 박노완·박웅규·장파 작가가 참여하는 《제13회 종근당고촌 예술지상》 전시가 개최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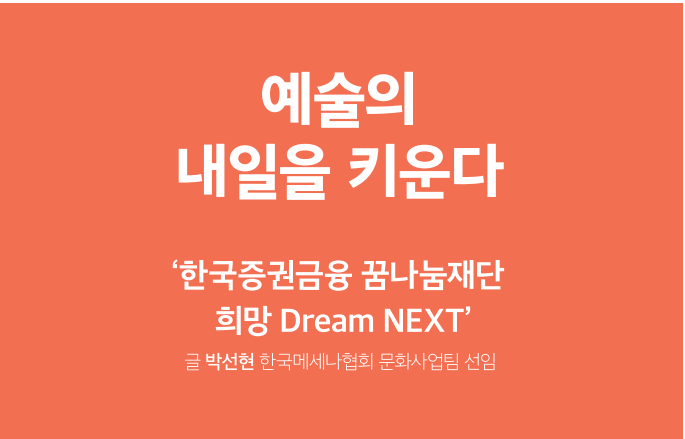
① 2026 종근당고촌 예술지상 올해의 작가 증서 수여식 현장

② 김명찬, <머라>, 알루미늄 판에 아크릴, 알루미늄 프로파일 에 부착(15 유닛), 280×180×40cm, 2025

③ 박그림, <One upper>, 비단에 담채, 91.6×64.6cm, 2024

④ 염지희, <속투리바: 발렌틴의 도끼 #4>, collage, pencil, charcoal, stone pigments on fabric, 112×162cm, 2025





예술인재의 단계별 성장 지원

지난 3월 31일, 한국메세나협회와 한국증권금융 꿈나눔재단은 서울 여의도 한국증권금융 본사에서 예술인재 지원사업 ‘희망 Dream NEXT’의 첫 발대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는 선정된 예술인재들에게 지원증서를 수여하고 사업의 시작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자리였다. 현장에서는 오디션 전 과정을 담은 영상이 공개되어 선발의 여정을 함께 되짚었다. 이어 국악과 클래식 분야 음악영재 임사랑과 류현석의 축하 연주가 펼쳐지며, 선정자들과 관계자들은 그 울림 속에

서 앞으로의 여정을 함께 그렸다. ‘희망 Dream NEXT’는 씨앗을 심고, 무대를 열고, 미래를 그리는 사업이다. Seed(음악영재 장학)·Stage(신진연주자 지원)·Sketch(신진작가 지원)의 세 축으로 구성되며, 재능 있는 예술인재가 성장의 각 단계에서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올해는 음악영재 10명(공나은·김건호·김정아·류현석·박하윤·부예서·이서운·이주언·임사랑·조현서), 클래식 신진 연주자 2명(바이올리니스트 유다운·피아니스트 임주희), 젊은 시각예술 작가 3명과 1팀(김휘아·유아연·장우주·아하콜렉티브)이 최종 선발되었다. 이들에게는 장학금과 창작지원금은 물론, 멘토링, 공연 및 전시 개최, 해외 콩쿠르 참가 지원 등 단계별 맞춤 성장 프로그램이 함께 제공된다. 한편, 올해 음악영재로 선발된 첼리스트 김정아는 지난 4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2026 클래식 첼로 국제 콩쿠르Classic Cello International Competition’에서 15세의 나이로 역대 최연소 1위를 차지했다. 김정아는 ‘희망 Dream NEXT’를 통해 장학금과 앙상블 교육·마스터클래스 등을 지원받으며 성장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국증권금융 꿈나눔재단의 새로운 도전이 앞으로 얼마나 많은 예술인재들의 꿈을 현실로 바꾸어갈지 기대를 모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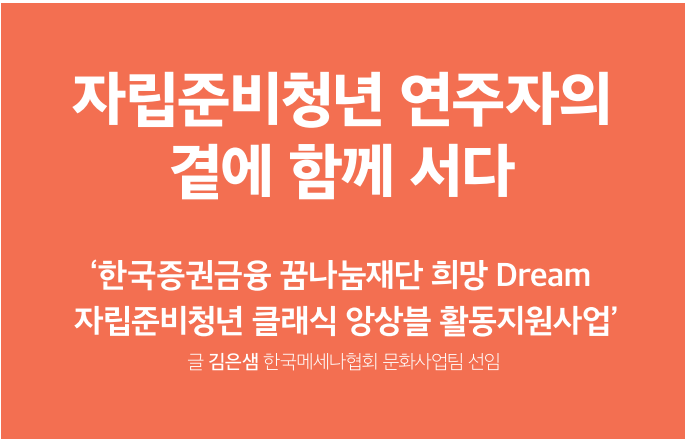
① 한국증권금융 꿈나눔재단 ‘2026 희망 Dream NEXT’ 발대식
② 발대식에서 축하 연주를 하는 음악영재 1기 류현석



1



2



게임음악으로 성장하는 오블리주 앙상블

자립준비청년은 보육원 등의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성장한 뒤 성인이 되어 사회로 첫 발을 내딛는 청년을 의미한다. 이들은 주거와 경제적 자립은 물론, 진로와 정체성에 대한 고민까지 동시에 마주하게 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메세나협회는 한국증권금융 꿈나눔재단과 함께 클래식 연주자를 꿈꾸는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클래식 앙상블 활동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단순한 교육이나 일회성 지원을 넘어, 자립준비청년들이 실제 무

대 경험을 통해 관객과 만나고 자신만의 연주 이력을 쌓아갈 수 있도록 돕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안정적으로 음악 활동을 이어가며 전문 음악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지난해 11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오블리주 앙상블’은 바이올린 백현진·비올라 김대건·첼로 이한길·피아노 이승훈으로 구성되었다. 본격적으로 연주자의 길을 걷기 시작한 이들은 본 사업을 통해 전문 음악가의 멘토링과 다양한 공연 기회를 지원받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팀의 정체성을 다지고 무대 경험을 쌓으며 관객과 만날 수 있는 기반을 넓혀가는 중이다. 이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게임’에 대한 깊은 애정이다. 게임을 가까이에서 즐겼던 이들은 게임 속 음악이 만들어내는 감정과 경험의 힘을 잘 알고 있다. 오블리주 앙상블은 공통된 관심사를 중심으로 ‘게임음악 전문 앙상블’이라는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다. 국내에서 게임음악을 활용한 공연으로 활발히 활동하는 지휘자 진술의 멘토링을 통해 그 가능성을 구체화하고 있다. 오블리주 앙상블은 앞서 서촌 ‘크레디아클래식클럽’에서 열린 살롱콘서트 《LOG-IN》과 여의도 한강공원 버스킹 공연을 통해 관객과 만나왔다. 오는 6월 20일에는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용에서 게임음악 콘서트 《LEVEL UP》을 개최한다. ‘리그 오브 레전드’, ‘브롤스타즈’, ‘모두의마블’ 등 익숙한 게임음악을 앙상블과 오케스트라 사운드로 새롭게 선보이며 관객과의 접점을 넓혀갈 예정이다.



1

① 자립준비청년을 주축으로 구성된 ‘오블리주 앙상블’
② 살롱 콘서트《LOG-IN》에서 연주하는 오블리주 앙상블



2

예비 창작자에서 선배 예술가로

‘두산아트스쿨: 창작 워크숍’

글 오현상 한국메세나협회 문화사업팀 선임



1



2

8년의 시간이 만들어낸 성장의 선순환

“워크숍 참여자로서 5년 전에 동료들과 나눴던 대화, 그리고 강사로서 이번 겨울 동안 참여자들과 나눴던 이야기 모두 다른 곳에서는 쉽게 얻기 어려운 정말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올해 2월, ‘두산아트스쿨: 창작 워크숍’ 14기 발표회를 마친 강동훈 극작가가 전한 말이다.

‘두산아트스쿨: 창작 워크숍’은 예술가를 꿈꾸는 19세부터 24세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창작 경험과 발표 기회를 제공하며,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참여자들은 현장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예술가들과 함께 연기·연출·희곡·무대미술·음악 등 다양한 분야를 경험하며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어간다.

올해로 8년 차를 맞은 ‘두산아트스쿨: 창작 워크숍’은 참여자가 창작 현장의 주체로 성장해 다음 세대를 만나는 선순환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그 첫 번째 상징적인 사례가 올해 14기 희곡 워크숍의 주 강사로 참여한 강동훈 극작가다.

강동훈 작가는 2021년 진행된 ‘두산아트스쿨 5기 희곡 워크숍’의 참여자였다. 이후 데뷔작 《그게 다예요》로 동아연극상 희곡상을 수상하며 창작자로서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2024년에는 두산아트센터가 공연 분야의 젊은 예술가를 발굴해 지원하는 ‘DAC Artist’로 선정되어 지난해 신작 연극 《도그 워커의 사랑》을 Space111에서 선보이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창작 워크숍에서 동료들과 치열하게 연극에 대한 고민을 나눴던 청년 창작자는 5년이 지난 지금, 스무 명의 후배 창작자들과 그간의 여정을 이야기하는 선배 예술가로 성장했다. 같은 자리를 먼저 거쳐 왔기에 창작 과정의 막막함과 설렘, 창작자로서의 현실적인 고민까지 깊이 공감하며 참여자들과 진솔한 대화를 이어갈 수 있었다.

‘두산아트스쿨: 창작 워크숍’이 8년간 이어져 올 수 있었던 힘은 단순한 교육의 축적에만 있지 않다. 이곳에서 창작의 가능성을 발견한 청년이 다시 다음 세대의 창작자들과 만나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또 다른 가능성을 이어가는데 있다. 앞으로도 이 안에서 창작자들은 작품을 넘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며 다음 세대로 이어질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갈 것이다.

① ‘두산아트스쿨: 창작 워크숍’ 14기 희곡 발표회 현장

② ‘두산아트스쿨: 창작 워크숍’ 14기 참가자를 지도하는 강동훈 작가

다름이 모여 하나의 세계가 되다

‘IBK 모두다 아트캠프’

글 김혜림 한국메세나협회 문화사업팀 매니저

이주배경 아동들의 특별한 문화교류

‘IBK 모두다 아트캠프’는 언어 장벽이나 경제적·지리적 제약으로 문화예술 체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이주배경 아동들을 위해 마련된 사회공헌사업이다. 4회차를 맞은 캠프는 문화예술을 매개로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교류하는 장으로 자리 잡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중국, 베트남, 나이지리아, 카자흐스탄 등 다양한 국가적 배경을 가진 150여 명의 아이들이 총주연수원에 모여 2박 3일간 특별한 겨울방학을 보냈다.

가장 눈에 띄었던 협동 프로그램 ‘윈터 글로벌 빌리지’는 ‘우리 모두가 함께 완성하는 하나의 지구’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아이들은 아시아의 송례문, 유럽의 에펠탑, 아프리카의 피라미드, 오세아니아의 오페라하우스 등 세계 각지의 랜드마크를 함께 만들어 지역마다 다른 겨울 풍경과 문화가 삶에 미치는 영향을 자연스럽게 살펴보았다. 아이들의 손끝에서 조금씩 형태를 갖춰간 조각들은 마침내 하나의 지구로 완성되었다.

‘무지개 코끼리’ 프로그램에서는 동화 속 캐릭터 ‘엘머’를 통해 다름이 배제의 이유가 아니라는 메시지를 나누며 각자의 개성을 담은 코끼리 작품을 만들었다. 서로 다른 무늬가 하나의 작품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캠프가 전하고자 한 메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이 외에도 ‘다국적 전통놀이’, ‘모두다 댄스 챌린지’, ‘미디어 상상놀이극’, ‘싸운드 써커스’, 대한태권도협회의 시범공연과 교육까지, 다양한 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은 언어를 넘어 몸짓과 놀이, 예술로 서로를 이해하며 어울렸다.

캠프의 경험은 프로그램 밖에서도 이어졌다. 마크니 커리와 난, 탄두리 치킨, 짜장면, 베트남 쌀국수 등 참여 아동들의 출신 배경을 아우르는 메뉴와 할랄 푸드가 준비된 식탁에서는 “우리 집에서도 비슷한 거 먹어요,” “처음 먹어보는데 맛있어요.”라는 말이 오갔다. 식탁은 그 자체로 또 하나의 프로그램이 되었다.



1



2



3

① ‘윈터 글로벌 빌리지’ 완성 후 기념 촬영

② ‘윈터 글로벌 빌리지’에서 유럽-에펠탑 팀이 완성한 작품

③ ‘무지개 코끼리’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이들

이번 ‘IBK 모두다 아트캠프’는 다문화하 ‘이해해야 할 개념’이 아니라 ‘함께 경험하는 감각’으로 전하는 시간이었다. 총주에서 보낸 2박 3일이 아이들에게 서로의 다름을 자연스럽게 마주하는 경험으로 오래 기억되기를 바란다.

역사와 국악이 전하는 울림

‘효성그룹 Sound of Heritage’

글 임하은 한국메세나협회 문화사업팀 매니저



공연을 통해 되새기는 호국보훈의 의미

역사는 과거에만 머물지 않는다. 때로는 한 사람의 목소리로, 때로는 가락이 되어 우리 곁으로 돌아온다. 효성그룹과 한국메세나협회가 함께한 《Sound of Heritage: 전통의 울림》은 바로 살아 숨 쉬는 역사를 만나는 시간이었다.

올해 시작한 ‘Sound of Heritage’는 효성그룹의 호국보훈 사회공헌 테마를 바탕으로, 미래세대가 우리 역사와 전통문화에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지난 6월 4일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용에서 열린 공연에는 수도권 교육복지우선학교 초등학생들이 초청되었다.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아이들에게 공연 관람의 기회를 제공하고, 호국보훈의 의미를 쉽고 흥미롭게 전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었다.

이번 공연은 역사 강사 최태성과 소리꾼 최재구가 함께한 렉서 콘서트 형식으로 꾸며졌다. 이야기는 호국보훈의 상징적 인물인 이순신과 안중근의 삶과 정신을 중심으로 펼쳐졌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결단을 내렸던 두 인물의 서사는 역사 강연과 국악 공연으로 어우러지며 더욱 생생하게 전달되었다. 최태성이 역사를 오늘의 언어로 건넸다면, 최재구의 소리와 국악 앙상블밴드의 연주는 그 서사에 감정의 결을 더했다. 특히 최재구는 전통 판소리의 서사성에 연극적 요소를 접목한 창작곡 5곡을 선보이며, 어린 관객들이 역사적 장면에 몰입하며 인물의 감정에 더욱 깊이 공감할 수 있도록 이끌었다.

공연의 마지막에는 출연진과 관객이 다 함께 만세삼창을 외치고 태극기를 높이 들어 올렸다. 이 장면은 역사 속 인물들의 결단이 오늘을 살아가는 아이들의 마음속에 하나의 울림으로 닿는 순간이었다.

효성그룹이 전한 이번 울림이 미래세대에게 우리 역사와 전통문화를 더욱 가까이 느끼는 뜻깊은 기억으로 오래 남기를 바란다. 

[1] 《Sound of Heritage: 전통의 울림》에 출연한 역사 강사 최태성과 소리꾼 최재구

[2] 만세삼창과 함께 태극기를 들어 보이고 있는 관객들

문화투어

기업 문화소비 활성화 지원 캠페인

선물하는 문화, 함께하는 문화

공연, 전시, 도서 등 문화예술을 선물하세요!
문화기업업무추진비(문화비) 지출에 1:1 매칭, 최대 300만 원 지원

① 트랙. 함께하는 문화선물 공연, 전시 및 문화행사 선물		② 트랙. 손에 잡히는 문화선물 도서, 음반 선물	
지원범위	① 문화예술 관련 공연 및 전시 티켓 ② 예술단체(인) 초청을 통한 문화접대 프로그램 진행 시 공연·출연료 일부	① 국내 작가의 문학·인문·예술도서(소설, 시, 에세이 등) ② 국내 아티스트의 음반	
참여자격	대한민국 국내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대한민국 국내에 주소를 가진 기업(법인에 한함)		

문화기업업무추진비란?

문화기업업무추진비(구 문화접대비) 제도는 기업이 고객 등에게 연극, 뮤지컬, 오페라, 전시 등의 티켓이나 도서, 음반, 미술품을 구입하여 선물하는 등 문화비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에 대해 기존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에도 불구하고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20% 까지 추가로 손금을 인정해 법인세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문화선물은 거래처에 좋은 인상을 주고 직원들의 워라벨에 기여해 직장생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으며, 더불어 문화예술계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메세나협회

전통 판소리와 웹툰의 만남 ‘젊은 국악인 관객개발 지원 프로젝트’ 첫 무대

한국메세나협회가 기획한 ‘젊은 국악인 관객개발 지원 프로젝트’의 첫 결실 이 리움미술관 강당에서 펼쳐졌다. 삼성문화재단의 후원으로 지난 2월 28일 과 3월 29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무대에서 소리꾼 정승준은 전통 판소리와 웹툰을 결합한 《정승준의 판툰 '심청'》을 선보이며 국악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번 프로젝트의 첫 번째 예술가로 선정된 정승준은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심청가' 이수자로,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장원과 명창박록주전국 국악대전 종합대상(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JTBC 팬텀싱어3, MBN 무명전 설 등에 출연하며 판소리를 다양한 방식으로 대중에게 소개해왔다.

《정승준의 판툰 '심청'》은 보성소리 '심청가'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담백하면서도 밀도 높은 소리와 인물의 감정을 섬세하게 그려내는 대목은 심청의 효와 희생, 인간적인 고뇌를 깊이 있게 전달했다. 특히 무대 중앙에 투사된 웹툰 장면이 고수와 아쟁의 연주와 어우러지며 시청각적인 효과를 극대화했다. 약 90분간 이어진 공연 동안 관객들은 웃음과 감동을 오가며 자연스럽게 작품에 빠져들었다.

한 관객은 “웹툰이라는 형식을 통해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국악 공연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라며 “기업이 우리 전통예술을 후원한다는 점도 인상적이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후원사로 참여한 삼성문화재단은 리움미술관 멤버십 프로그램을 통해 국악을 비롯한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선보이며 문화예술을 꾸준히 소개해왔다.

이번 공연은 멤버십 회원뿐 아니라 일반 관객도 함께할 수 있도록 운영되었으며, 500명 이상이 신청하는 등 높은 관심을 모았다.



1 '젊은 국악인 관객개발 지원 프로젝트' 첫 예술가 정승준의 무대
2 《정승준의 판툰 '심청'》 공연 시작을 기다리는 관객들

한국메세나협회는 앞으로도 기업과 예술가를 잇는 가교로서 신진 국악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우리 전통예술의 저변 확대에 힘쓸 계획이다.

젊은 국악인 관객개발 지원 프로젝트

유망한 젊은 국악인을 발굴해 기업 협력 및 무대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기업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전통예술분야 관객 개발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2026년에는 전문 자문위원단의 추천을 받은 만 40세 이하의 청년 국악인(팀) 7팀을 선정해 기업과 매칭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업은 1팀(인)을 선택해 창작 활동비를 지원하게 되며, 사내 공간 또는 CSR 지원처 등 원하는 장소에서 2회 공연을 개최할 수 있다.

사업문의 02-761-0858 | jhs@mecenat.or.kr

AI시대의 미래, 뇌과학자와 함께한 CEO&리더스 포럼

지난 4월 7일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상반기 ‘메세나 CEO&리더스 포럼’이 열렸다. 이날 포럼에서는 그동안 모더레이터로 함께해 온 장동선 박사가 ‘뇌과학자가 바라본 AI 시대의 미래’를 주제로 특별강연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장동선 박사는 인간 뇌의 진화 과정을 바탕으로 ‘연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인류는 사회적 존재로 진화해왔으며, 교육과 기록, 디지털 혁명을 통해 축적한 ‘문화’가 발전의 핵심 동력이었다고 설명했다. 예술 경험의 공유 역시 공감과 사회적 연결을 강화하는, 기술로 대체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영역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고립’을 AI 시대의 주요 리스크로 지목하며, 사회적 연결이 단절될 경우 인지와 공감 능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 박사는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이라며, AI를 활용하더라도 좋은 질문을 던지는 능력과 맥락을 읽는 힘, 스스로 사고하는 과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에는 회원사 대표 및 리더 80명이 참석했으며, 국악영재 한예준(아쟁)의 축하 공연도 함께 진행되었다.



‘메세나 CEO&리더스 포럼’은 한국메세나협회의 회원사 서비스로, 2012년부터 인문·사회·경영·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청해 경영의 인사이트와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해오고 있다.

A&B포럼, 여수·통영 문화공간 랍방

A&B포럼의 올해 첫 프로그램은 ‘문화CSR 역량강화 워크숍: 여수·통영 문화공간 방문’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4월 3일부터 4일까지 양일간 여수와 통영의 주요 문화예술 공간을 둘러보며 기업과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공헌 사례를 살펴보았다.

첫날 방문한 GS칼텍스 예울마루는 자연과 건축의 조화가 돋보이는 복합문화 공간으로, 기업과 지자체가 협력해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대표 사례로 손꼽힌다. 공간 투어를 진행한 박필규 관장은 완성도 높은 공연장 설계와 함께 지역 예술인재를 위한 무대 지원 등 예울마루의 공익적 역할을 소개했다. 이어 ‘예술의 섬 장도’에서는 레지던시 작가의 기획 전시 《섬냥이 in 장도》를 관람하며 지역성과 예술성이 결합된 콘텐츠를 경험했다.

둘째 날에는 예술의 도시 통영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참가자들은 윤이상기념관과 전혁림미술관을 방문한 뒤, 통영국제음악당에서 공연장 투어와 함께 ‘2026 통영국제음악제’ 공연을 관람했다. 통영국제음악당은 뛰어난 음향 환경



과 전문적인 공연 운영으로 국내외 음악가들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지역민과 학생들을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이번 포럼에 참여한 회원들은 “기업의 사회공헌이 단순한 지원을 넘어 지역 문화 생태계를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임을 체감할 수 있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협회 뉴스

뉴욕을 매료시킨 김한의 첫 카네기홀 무대

한국메세나협회의 '카네기홀 데뷔 콘서트 지원 프로젝트' 세 번째 연주자인 클라리네티스트 김한이 지난 5월 3일 미국 뉴욕 카네기홀 젠클홀에서 성공적인 데뷔 리사이틀을 마쳤다. 이날 공연장에는 토마스 노박(링컨센터 체임버 뮤직 소사이어티 디렉터), 레아 첸(뉴욕스타매니지먼트 대표) 등 공연장 관계자와 음악 평론가 등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현재 파리국립오페라에서 관악 부문 동양인 최초 종신 수석으로 활동 중인 김한은 피아니스트 홍사헌과 함께 생상스, 브람스, 풀랑크, 번스타인의 클라리넷 소나타와 이건용의 <Song in the Dusk>를 선보였다.

미국 클래식 전문 매체인 『뉴욕 클래식컬 리뷰 New York Classical Review』는 “탁월한 기량과 표현력으로 관객을 매료시키는 연주”라며 “김한은 섬세한 음색과 압도적인 몰입감으로 국제 음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호평했다.

한국메세나협회와 미국 코리아 뮤직 파운데이션이 추진하는 '카네기홀 데뷔 콘서트 지원 프로젝트'는 우수한 한국 클래식 인재를 글로벌 무대 진출을 지



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풍산, 노루홀딩스, 벽산문화재단, 서울옥션, 설원랑 문화재단, 아모레퍼시픽재단, 동성케미컬, CJ문화재단, 미국 MetLife 등 9개 기업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나무가 공동 후원에 참여하며 힘을 보탤다.

‘면사랑 신진 유망 연주자상’ 4기 선정

한국메세나협회와 ㈜면사랑이 피아니스트 배재성, 바이올리니스트 이수빈, 더블베이스리스트 유시현을 '면사랑 신진 유망 연주자상' 4기 수상자로 선정했다.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재학 중인 배재성은 서울국제음악콩쿠르 입상 이후 활발한 연주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수빈은 예후디 메뉴인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 등 주요 국제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냈으며, 2024년부터 퀸 엘리자베스 뮤직 샤펠 상주음악가로 활동하고 있다. 유시현은 지오반니 보테시니 국제 콩쿠르와 ISB 국제 더블베이스 콩쿠르에서 잇달아 우승하며 주목받았으며, 현재 오스트리아 빈국립음악학교에 재학 중이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면사랑 신진 유망 연주자상'은 예술적 역량과 성장 잠재력이 있는 연주자들을 후원하기 위해 기획된 사업이다. 최근 5년 이내 국제음악콩쿠르 피아노·관악·현악 부문 순위권 수상자와 특별상 수상자 중 3인을 선정해 1인당 1,000만 원씩 3년간 지원한다.

이충관 한국메세나협회 사무처장은 “국제 콩쿠르 입상 이후에도 연주 활동



과 해외 무대 진출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지원이 연주자들의 지속적인 성장과 새로운 도전의 원동력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3인의 연주자들은 오는 하반기, 면사랑 본사가 위치한 충북 진천에서 지역 오케스트라 학생들 위한 음악회 및 마스터클래스에 참여할 예정이다. 

회원사 뉴스

‘한성자동차 드림그림’ 15기 활동 시작

한성자동차의 미술영재 장학사업 ‘드림그림’ 15기가 지난 4월 4일 서울 중구 위워크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오리엔테이션과 첫 번째 아티스트 멘토링을 시작으로 2026년 활동의 막을 올렸다.

올해는 ‘Drive your Dream, Draw your Future’라는 슬로건 아래 패턴, 디지털 콜라주, 드로잉, 그래픽 디자인 등 네 가지 일러스트 장르를 주제로 총 4회의 멘토링을 진행한다.

첫 번째 멘토링은 일러스트레이터 우인영 작가와 함께했다. 장학생들은 꽃, 새, 동물 등 자신을 상징하는 오브제를 탐색하고, 이를 패턴으로 확장해 자신만의 화병 아트워크를 완성했다. 같은 주제로 시작했지만, 각자의 개성과 감정에 따라 저마다 다른 이야기를 담은 작품들을 선보이는 시간이었다.

이후에는 다양한 소재를 재조합해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하는 ‘디지털 콜라주’ 선과 형태로 자신만의 세계를 표현하는 ‘드로잉 일러스트’ AI 도구를 활용해 시각적 언어로 메시지를 구조화하는 작업을 다루는 ‘그래픽 디자인’ 멘토



링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드림그림 장학생들은 다양한 창작 경험을 통해 자신만의 시각 언어를 확장하며 예술가로서의 가능성을 키워나갈 계획이다.

뮤지엄한미, 한국 현대사진 거장 4인 전시 개최

뮤지엄한미가 서로 다른 시선과 방법으로 한국 현대사진의 지평을 확장해온 사진가 4인을 기리는 기획전 《모든 순간이 꽃봉오리인 것들: 육명심·홍순태·한정심·박영숙》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뮤지엄한미가 소장하고 있는 네 작가의 주요 연작 110여 점으로 구성되었다. 인물과 자연, 기록과 성찰이라는 서로 다른 축 위에서 전개된 작업을 통해 한국 현대사진이 축적해온 인간의 결을 되짚어보게 한다.

육명심은 〈백민〉 연작을 중심으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인물 군상을 담아내며, 한 시대의 정신과 문화적 자화상을 구축해왔다. 홍순태는 〈청계천〉과 〈서울〉 연작을 통해 약 50년에 걸친 도시의 변화와 재건 과정을 포착하며 전통과 현대, 부조리와 화합의 층위를 담아냈다. 한정심은 〈고요〉 연작을 통해 자연과 풍경을 절제된 화면 속에 담아내며, 침잠과 사유의 시간을 사진언어로 제시했다. 박영숙은 〈36인의 포트레이트〉 초기 연작을 통해 동시대를 살아온 인물들의 얼굴을 깊이 있게 응시하며, 개별 존재의 삶과 그 배후에 흐르



는 시대상을 상세히 기록했다.

전시 제목은 정현중 시인의 동명 시에서 영감을 받아 붙여졌다. 작가들이 포착한 수많은 순간들은 여전히 피어날 가능성을 지닌 '꽃봉오리'처럼 오늘의 시선에서 다시 읽힌다는 의미다. 이번 전시는 7월 19일까지 뮤지엄한미 삼청본관에서 열린다.

회원사 뉴스

리움미술관, 여성 작가 11인의 작업을 재조명한 전시 개최

리움미술관이 기획전 《다른 공간 안으로: 여성 작가들의 공감각적 환경 1956-1976》을 11월 29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2023년 독일 하우스 데어 쿤스트에서 시작해 로마 MAXXI, 홍콩 M+를 거쳐 확장되어 온 프로젝트로, 미술사에서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여성 작가들의 선구적 ‘환경’ 작업을 재조명한다.

‘환경’은 관람자가 작품 안으로 들어가 빛과 소리, 색, 움직임 등을 몸으로 경험하는 예술 형식을 의미한다. 1950~70년대 이 장르를 실험적으로 개척했던 여성 작가들의 작업은 보존의 어려움과 남성 중심 미술사 속에서 오랫동안 잊혀왔다. 이번 전시는 미술사가, 보존연구가, 유족 등이 협업한 다학제적 연구를 바탕으로 사라진 작품들을 복원해 소개한다.

전시장에는 주디 시카고, 마르타 미누친, 아마자치 츠루코 등 아시아·유럽·남미를 아우르는 여성 작가 11인의 환경 작업이 실물 크기로 재구성되어 있다. 특히 한국 여성 작가 정강자의 〈무체전〉을 최초로 고증·복원해 공개하며, 마



리안 자질라·라 몬테 영·최정희의 협업작 〈드림 하우스〉를 아시아 최초로 선보인다. ‘복원의 시간’과 ‘지속의 시간’을 함께 조망하며, 환경 예술이 과거에 머무는 장르가 아니라 오늘날에도 계속 확장되고 있는 살아 있는 예술 형식임을 보여준다.

세아그룹, ‘아-하! 대동여지도 탐구’ 제작 지원

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전시관 1층 벽면에는 전통 한지에 출력한 대형 지도 <대동여지도>가 전시되어 있다. 박물관 소장품인 김정호의 <대동여지도>는 우리나라를 남북 22개 구간으로 나눠 첩 형태로 제작한 접이식 전국지도로, 22권의 첩을 모두 펼치면 세로 약 6.7m, 가로 약 3.8m에 이른다.

전시 공간에는 어린이를 포함해 전 연령대가 활용할 수 있는 ‘아-하! 대동여지도 탐구’ 교육 활동 자료도 마련되어 있다. 지도 구석구석을 살펴볼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담았으며, 관람객이 직접 색칠하면서 자신만의 지도를 완성하고 우리나라를 새로운 시선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2월 12일 전시 개막과 함께 제공된 교육 활동 자료는 한 달 만에 약 5만 명이 이용하며 빠르게 소진되었다. 이에 세아그룹이 ‘기업과 예술의 만남’ 사업을 통해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에 추가 제작을 지원했다. 세아그룹의 후원으로 더 많은 관람객이 교육 활동 자료를 활용하며 전시를 체험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국립중앙박물관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세아그룹 임직원과 가족을 초



청해 어린이박물관과 상설전시 관람을 진행했다. 임직원과 가족들은 전시와 교육 활동 자료를 통해 문화유산을 친근하게 접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회원사 뉴스

신한은행, 발달장애인 음악단 ‘신한 SOL레미오’ 창단

신한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발달장애인 연주자로 구성된 음악단 ‘신한 SOL레미오’를 창단했다. 이번 창단은 지난 3월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및 주요 금융협회가 함께 체결한 ‘금융권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이루어졌다. 신한은행은 장애인 고용 확대 기조에 발맞추어 문화예술 분야의 새로운 직무 모델을 제시하고 포용적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지난 4월 22일 신한아트홀에서 열린 창단식은 ‘신한 SOL레미오’의 첫걸음을 알리는 자리였다. 이날 행사에는 강영홍 신한은행 경영지원그룹장, 임영미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박범준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이종성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장 등 주요 관계자와 선발 단위 및 가족들이 참석해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3월 공개채용을 통해 ‘신한 SOL레미오’ 단위 28명을 선발했다. 이들은 새롭게 마련된 전용 연습 공간에서 근무하게 된다. 단원들은 전



문 멘토의 지도 아래 합주 연습, 개별 레슨 등을 받으며 음악 역량을 키우고, 하반기에는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공연도 선보일 예정이다. 아울러 발달장애인 예술인 발굴·육성 사업을 병행해 ‘발굴·육성·채용’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세화미술관, 봄 음악회 《서울 사운드 피크닉》 성료

세화미술관이 서울 광화문 흥국생명 빌딩 앞 문화광장과 로비에서 진행한 봄 음악회 《서울 사운드 피크닉(Seoul Sound Picnic)》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5월 19일부터 28일까지 평일 점심시간에 진행된 이번 공연은 별도 좌석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는 버스킹 형태로 운영되었다.

국악 크로스오버 밴드 ‘음유사인’을 시작으로 우리음악집단 소옥, 예원학교, 트리거, 구이임, 콜라주 앙상블 하바해, 일주학술문화재단 장학생들로 구성된 일주오케스트라 등 총 7개 팀이 참여해 국악, 퓨전국악, 클래식 등 다양한 장르의 무대를 선보였다.

참여 아티스트들은 전통 악기의 울림을 동시대 감각으로 재해석하며 한국 고유의 소리를 확장된 형태로 풀어냈다. 국악과 서양음악이 어우러진 무대는 도심 속 광장을 하나의 공연장으로 만들며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음악적 경험을 제공했다.

세화미술관을 운영하는 태광그룹 세화예술문화재단은 미술 전시의 감각을 ‘소리’와 ‘시간’의 경험으로 확장하는 차원에서 이번 음악회를 마련했다. 세화



미술관 관계자는 “광장 앞을 지나치는 모든 시민들이 도심 속에서 자유롭게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열린 미술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회원사 소개 (가나다순)

회장사	크라운해태제과그룹				
부회장사	교보생명보험	삼양홀딩스	세아제강	파라다이스문화재단	
	노루홀딩스	서울향료	유니드	풍산그룹	
	삼성문화재단(리움미술관)	설원량문화재단	종근당	한미약품	
이사사	금호문화재단	이건홀딩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SK SUPEX추구협의회 Social Value위원회	
	남이섬	일신문화재단	한성자동차		
	(주)두산	일신방직	CJ제일제당		
	사라	한국경제인협회	LG연암문화재단		
회원사	가나아트갤러리	마케팅큐레이터 그룹	(주)신세계	케이옥션	호텔신라
	강원랜드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신세계디에프	코리아 투모로우	힐라코리아
	경남스틸	메트라이프생명 사회공헌재단	신성씨에스	코리아리 재보험 주식회사	휴맥스
	공간그룹	(주)면사랑	신한투자증권	코스모스악기	BAT로스만스
	금융투자협회	모나미	신한은행	코오롱그룹	BMW코리아
	금문철강	문화유산국민신탁	신한카드	코카콜라음료	BNK경남은행
	금호건설	미디어윌	아라마크	클라우드나인마케팅	D동일
	금호고속	바텍	아시아나HDT	클럽발코니	DL이앤씨
	금호고속 유스퀘어	백산엔지니어링	아시아나에어포트	태영건설	GA KOREA smart city & resort
	금호미쓰이화학	보령제약	아이피케이	템퍼코리아유한회사	GS문화재단
	금호타이어	빌모트 건축사무소 한국지사	아테나컴퍼니	퍼시스	GS칼텍스 예울마루
	나라삼양감속기	삼성SDI	에네스지	페르페티 반 멜 아시아퍼시픽	GS칼텍스주식회사
	나우피플	삼성SDS	에스원	한국FPSB	HD아트센터
	남이섬교육문화그룹	삼성물산	영무토건	한국공항공사	HK
	넷마블문화재단	삼성생명	오리콤	한국광고주협회	HS효성첨단소재
	노루오토코팅	삼성서울병원	오비맥주 주식회사	한국무역협회	IBK기업은행
	노루페인트	삼성엔지니어링	오성정보통신	한국서부발전	KBS교향악단
	뉴스킨 코리아	삼성전자	올림푸스한국	한국전력공사	KB국민은행
	다진	삼성중공업	우진	한국토요타자동차	KEB하나은행
	대신증권	삼성증권	우진건설	한독	KH필룩스
	대우건설	삼성카드	원마운트	한맥도시개발	KT
	대주기업	삼성화재해상보험	월드리츠개발주식회사	한미글로벌	KT is
	대창스틸	삼양인터내셔널	원포시스	한미회계법인	KT&G
	대한상공회의소	삼익문화재단	유안타증권	한빛문화재단	LG생활건강
	대한항공	삼일회계법인	유중아트센터	한세실업	LG전자
	주식회사 더성도	삼화에프앤에프	이건산업	한솔케미칼	LG화학
	더레드플러스	서울시립교향악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진	OCI
	돌살나이	서울옥션	인터파크 큐브릿지	한화	POSCO
	동서식품	선명회계법인	인하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한화생명	SK네트웍스
	동성케미컬	세계청소년문화재단	일진문화재단	한화손해보험	SK에코플랜트
	동아제약	세원특수금속	재단법인 송강재단	한화엔진	SK증권
	동아출판	세일ENS	제우인베스트먼트	한화호텔앤드리조트	SK텔레콤
	동일FnG	세화예술문화재단	제일기획	햇빛담요	SK해운
	두산연강재단	소만사	조선호텔	현대백화점	SM삼환기업
	두산에너지빌리티	송원문화재단	종이문화재단	현대자동차	TCC스틸
	디엑스체인지	수하패션	지일이파트너스자산운용주식회사	현대차 정몽구 재단	
	롯데렌터카	스테틀러코리아	지앤이어링코리아	현대퓨처넷	
	롯데문화재단	스파크인터내쇼날	카카오뱅크	호텔롯데	
	롯데백화점	신라교역	컨슈머타임스	호텔롯데 면세점	

회비 지원 (2025.12.01~2026.5.15)

감사드립니다

신규 입회

환영합니다



더레드플러스

예술적 창의성을 바탕으로 이벤트를 예술의 영역으로 확장하는 이벤트리스트들로 구성된 크리에이티브 그룹이다. 미디어·PR 마케팅, 글로벌 캠페인 등 다양한 프로젝트의 기획과 연출을 통해 브랜드 경험을 만들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왔다.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며, 완성도 높은 기획과 섬세한 디렉팅을 통해 이벤트를 하나의 작품으로 구현하고 있다.



세계청소년문화재단
World Youth & Culture Foundation

세계청소년문화재단

청소년의 문화예술·스포츠·교육 지원을 위해 2007년 설립되어 인재발굴 및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과 청소년에게 희망을 주는 공익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대표 사업으로는 조형예술분야의 신예작가 발굴을 위한 '대교국제조형심포지엄', 어린이의 문학 활동을 후원하는 '눈높이아동문학대전'이 있다. 이 외에도 사회적 배려계층 어린이의 예체능 지원을 위한 꿈나무사업 등을 운영하며 미래세대 꿈을 키워나가는 데 동행하고 있다.



아테나컴퍼니

2016년 설립 이후 사회실태 및 여론조사 리서치를 바탕으로 성과분석컨설팅, 고객만족컨설팅, 마케팅조사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과 협업하며 가치 있는 결과물을 창출하고, 고객만족 제고와 국가 통계 산출에 기여하고 있다.

Club BALCONY

클럽발코니

1995년 국내 기획사 최초의 공연 멤버십으로 시작해 같은 해 창간한 매거진을 현재까지 발행하며 클래식 공연 애호가들에게 품격 있는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6년부터는 모바일 예매 서비스를 도입했으며, 온·오프라인 회원에게 제휴 공연 혜택과 лек처, 문화여행, 이벤트 등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공연 후원, 아티스트 콜라보레이션, 아트마케팅 등을 통해 기업회원과 협업하며 문화마케팅을 선도하고 있다.

한국메세나협회에 납부해주시는 회비는
우리나라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기부금의 출발점입니다.
또한 문화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투자비로 쓰이는 소중한 자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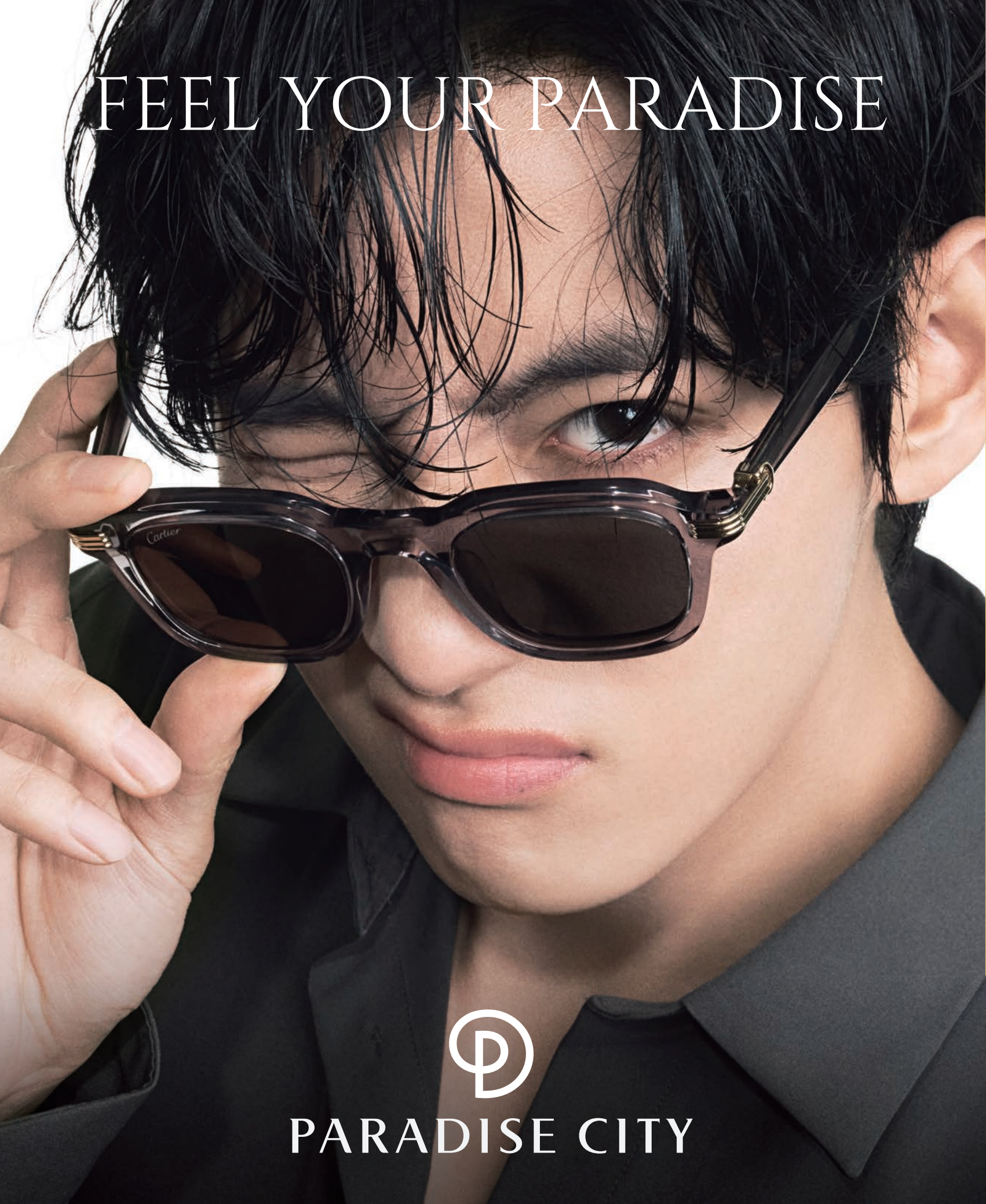


FOR 20 YEARS, CREATING THE NEXT WAVE OF K-CULTURE

칸영화제 단편 경쟁부문에 진출한 'THE DREAM IS A SNAIL'부터,
한국뮤지컬어워즈 작품상 수상 후 해외 무대에 오른 뮤지컬 '홍련',
글로벌 투어로 세계 팬들을 만나고 있는 'HYPNOSIS THERAPY'까지.

CJ문화재단은 20년간 음악, 영화, 뮤지컬 분야의 젊은 창작자들을 지원하며
K-컬처의 다음 물결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FEEL YOUR PARADISE



PARADISE CITY

동서식품

지금 행복하자
지금 행복한잔



Maxim 모카골드